

제1장 남포면(藍浦面)

본래 남포현의 소재지이므로 현내면(縣內面)이라 하다가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군내면(郡內面)이 되어, 중리(中里), 남리(南里), 동리(東里), 서리(西里), 발산(發山), 사현(沙峴), 월촌(月村), 교촌(校村), 동조(東鳥)의 9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新安면(新安面)의 야동(冶洞), 평촌(坪村), 소달(小達), 대달(大達), 양촌(陽村), 곡촌(谷村), 상기(上基), 하기(下基), 영전(令田), 월계(月溪), 매천(梅川), 봉촌(烽村), 상신(上新), 하신(下新), 양아(梁牙), 의항(蟻項), 방항(防項)의 17개 리와 북내면(北內面)의 응곡(甕谷), 관동(冠洞), 대덕(大德), 환리(環里), 봉산(鳳山), 창동(昌洞), 이천(伊川), 고야(古也), 대야(大也), 제석(帝碩), 삼현(三賢), 조척포(造尺浦), 후동(後洞), 소은(巢隱), 내송(內松), 외송(外松)의 16개 리와 보령군 우라면(于羅面) 금암리(金庵里) 일부를 병합하여 남포면이라 하여 달산(達山), 봉덕(鳳德), 삼현(三賢), 소송(巢松), 신흥(新興), 양기(陽基), 양항(梁項), 옥동(玉東), 옥서(玉西), 월전(月田), 읍내(邑內), 제석(帝釋), 창동(昌洞)의 13개 리를 관할하였다.

- 郡內面 <1911, 朝鮮地誌資料> : 남포현의 중심 면. 현재 남포면 읍내리, 옥동리, 옥서리 지역이다.
- 北內面 <1911, 朝鮮地誌資料> : 옛 남포현의 북부, 서부지역. 현재 남포면 창동리, 봉덕리, 소송리, 제석리, 삼현리 지역이다.
- 新安面 <1911, 朝鮮地誌資料> : 남포현의 서쪽에 있던 면. 현재의 남포면 달산리, 신흥리, 양항리, 양기리, 월전리 지역이다.

1. 달산리(達山里)

본래 남포군新安면의 지역으로서 달월이라 부르고 달산(達山)이라 표기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야동(冶洞), 평촌(坪村), 소달리(小達里), 대달리(大達里) 일부와 군내면의 월촌(月村) 일부를 병합하여 달산리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되었다.

6 • 남포면

- 가는골 : 작은델월과 외야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 허구재의 서쪽이다.
- 간사지 : 평촌 마을 서쪽에 있는 간척지 들.
- 강당뜸 : 야동 마을의 동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 구레 : 바위백이와 동산 사이에 있는 들.
- 구적들보 : 새내에 있던 보. 오리보와 마랫들보 사이에 있었다. 소송리 앞 들에 물을 대었다.
- 금천(金川) : 새내의 한자 표기.
- 긴뚝병갈 : 평촌(번던말)과 돌다리 마을 사이에 있는 들.
- 다락굴 : 작은델월의 동남쪽 골짜기. 이곳에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간이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달산1리 : 1반 양지뜸, 2반 강당뜸, 3반 음산뜸.
- 달산2리 : 1반 소달위뜸, 2반 소달아래뜸, 3반 대달위뜸, 4반 대달아래뜸.
- 달산3리 : 1반 위뜸, 2반 아래뜸, 3반 동살미.
- 달월(達月) : 델월의 한자 표기.
- 대달(大達) : 큰델월의 한자 표기.
- 대달리(大達里, 큰달월) : 큰델월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델월 : 달산리 서쪽에 있는 큰 마을. 큰델월과 작은델월로 구분된다.
- 독다리 : 평촌 남쪽 현 포장도로 서북쪽에 인접한 마을. 개울에 돌로 다리를 놓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돛밭이 : 작은델월 서쪽, 동산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토심이 낮고 돌이 많았었는데 경지정리 되었다.
- 동산 : 작은델월의 서쪽에 있는 동그란 산. 높이 31.0 m이다.
- 동산 : 평촌 동살미 마을 남쪽에 있는 언덕. 높이 16.8m이다.
- 동살미 : 평촌의 남쪽 마을. 돌다리 마을의 서쪽이다.
- 둥구재 : 작은델월 위뜸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87.7m이다.
- 띄섬 : 평촌(번번말) 서쪽에 있는 작은 섬
- 띄섬벗 : 띄섬에 있던 소금 굽는 가마 터.
- 마랫들보 : 새내에 있던 보. 오래이보와 구적들보 사이에 있었다. 소송리 앞들에 물을 대었다.
- 만들머리 : 평촌(번던말) 마을의 서쪽 끝 부분.
- 만리성 : 외야들 마을 동쪽 산정에 있는 성.
- 말목시 : 남포저수지의 수문 부분을 일컫는 말.

- 말무덤 : 동산 서쪽에 있던 무덤 같은 지형. 3개가 있었다. 모두 없어지고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 말무덤 : 비선거리 서쪽 평촌 가는 도로 북쪽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 명당굴 : 작은델월 남동쪽 다락굴의 남쪽 골짜기. 맑은 물이 나오는 웅달샘이 있는데 지금도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정월 초에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
- 물벗 : 동살미 아래에 있는 벗(소금가마). 육지 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바르미 : 작은델월의 아래 쪽. 서쪽에 작은 다랑이 논이 많았다.
- 바위백이 : 큰델월의 입구를 부르는 이름. 고인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배다리 : 야동 마을의 서쪽 하천 주변의 들 이름.
- 배다리 : 평촌 마을 북쪽 부분의 들.
- 번던말 : 평촌의 순수 우리말 이름. 노인들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다.
- 부득재 : 불무재의 다른 이름.
- 부영배서낭 : 부영배재 꼭대기에 있다. 신수로 느티나무가 있다.
- 부영재 : 야동 강당 마을에서 옥서리로 넘어가는 재. 위에 느티나무와 서낭이 있는데 지금도 마을 주민 중 몇 명은 정월 열엿새날 재를 지낸다고 한다.
- 부흥재 : 부영배재의 다른 이름.
- 불무굴 : 야동의 북쪽 부분. 야동(冶洞)의 어원이 되었다.
- 불무재 : 불무굴 안에 있는 고개. 불무굴 아래뜸과 위뜸 사이에 있다. 부득재라고도 한다. 위에 큰 바위가 있었다.
- 불무재 : 비선거리 동쪽에 있는 낮은 산. 작은델월에서 내려온 산줄기의 끝이다.
- 비선거리 : 델월과 평촌 사이에 있는 마을. 포장도로가 지나고 평촌, 델월로 갈라지는 4거리이다. 옛날 이곳 길옆에 비석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작은 비였는데 비신에 글씨가 없었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비로 보인다.
- 빙애길 : 큰델월에서 산허리를 돌아 허구재로 오르는 길. 이 길의 중간에 성황당이 있다. 빙애는 벼랑의 의미이다.
- 사작뿌리 : 불무재 서쪽 끝에 있는 모퉁이. 옛날 남포현의 사작단이 있던 곳이다.
- 사태백이 ; 훗작굴 마을의 동쪽 명당굴 서낭 사이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인데 나무, 풀이 없이 벌거숭이로 있어서 사태백이라 하였다. 6.25 때 인민군들이 야동 마을 뒤부터 이곳까지 호를 구축하였다. 지금도 호의 흔적이 남아 있다.
- 샷갓들 : 불무굴 서북쪽의 들. 샷갓보에서 물을 댄다.
- 샷갓보 : 불무굴 북쪽 옥서리 저수지 제방 밑에 있던 보. 불무굴 서쪽 들에 물을 대었다. 샷갓만 써도 물이 고인다는 전설이 있다.

8 • 남포면

- 새내 : 평촌 마을 북쪽에 있는 내.
- 새내들 : 평촌 마을 북쪽에 있는 들.
- 서낭대이 : 큰달월에서 허구재로 오르는 빙애길의 중간쯤 되는 산능선에 있었다. 정자나무 고목이 있었으나 없어지고 돌무더기만 있다.
- 서낭대이 : 큰달월의 입구 바위백이에 있었다.
- 소달 : 작은달월의 한자 표기.
- 소달리(小達里, 자근달월) : 작은달월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솔쪽뿌리 : 불무굴 서남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 남포중학교 입구이다.
- 쇠내 : 새내의 다른 이름.
- 쇠내보 : 평촌 서북쪽 쇠내에 있는 보. 쇠내들(새내들)에 물을 공급하였다.
- 아래뜸 : 불무굴의 중앙 부분 즉, 불무굴의 남쪽 부분이다.
- 아래뜸 : 작은달월의 서북쪽 부분.
- 아랫들 : 달산리와 소송리의 경계인 소송교 아래쪽에 있는 들.
- 아랫들보 : 달산리와 소송리의 경계인 소송교 아래에 있던 보.
- 야동(冶洞) : 달산리 북쪽 마을. 남포저수지의 서남쪽 마을이다. 위뜸, 아래뜸, 강당뜸, 외야들로 구분된다. 경주 최 씨의 집성촌으로 옛날에는 문 씨가 많이 살았다고 전한다. 불무굴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야동으로 굳어졌다.
- 양지뜸 : 야동 마을의 중심지이다. 남쪽을 향해 있어 양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오래이보 : 새내에 있던 보. 마랫들보 밑에 있었다. 평촌 북쪽의 들에 물을 대었다.
- 오리보 : 불무굴과 옥서리 노승쟁이 사이의 새내에 있는 보. 소송리 앞에 물을 대었다.
- 오야들 : 불무굴 마을의 남쪽, 작은달월의 북쪽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주민의 거주가 없었으나 1979년 남포중학교가 개교된 후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
- 오야들재 : 야동 마을 남쪽 오야들에서 작은 달월로 넘어가는 고개. 요즘은 사람의 왕래가 뜸하다.
- 옷샘 : 남포중학교 남동쪽 옷샘골 안에 있다.
- 옷샘골 : 남포중학교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옷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는 골의 밑이다. 현재는 부화장과 양계장이 들어서 있다.
- 외야들고랑 : 작은달월과 외야들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논으로 이용된다. 골짜기의 위쪽은 가는골이다.
- 외야뜰 : 불무굴 마을의 남쪽 부분. 남포중학교가 있다. 오야들이라고도 부른다.

- 원논 : 평촌 마을 서쪽 언덕 밑에 있는 논. 간척지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논이라는 뜻이다.
- 위뜸 : 불무굴의 북쪽 부분.
- 위뜸 : 작은달월의 동남쪽 부분.
- 음산뜸 : 야동 마을의 남쪽 부분으로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음지뜸 : 야동 마을의 남동쪽 부분.
- 음지뜸 : 작은달월 동남쪽 그늘진 곳.
- 작은달월 : 달월 마을의 북쪽 부분. 위뜸과 아래뜸, 음지뜸으로 구분된다. 창원 황 씨 (昌原黃氏) 50여 세대가 12대를 살아온 집성촌이다.
- 은달월고랑 : 작은달월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점 : 점말의 다른 이름.
- 점말 : 비선거리 단위농협 창고 동쪽 마을. 약 25년 전까지 이곳에 옹기그릇을 굽던 점이 있었다.
- 진개울고랑 : 진도막갈의 다른 이름.
- 진도막갈 : 동살미 마을의 남서쪽에 위치하는데 남포간척지가 건설되기 전인 1960년대에는 바닷물이 드나들었다고 전한다. 이곳에 약샘이 있어 팔다리를 빼었을 때 찜질하면 나왔다고 전한다. 진개울고랑이라고도 한다.
- 진등이들 : 평촌 마을과 비선거리의 북쪽, 야동 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들.
- 쪽대들 : 동산 서쪽에 있는 들.
- 쪽재들 : 큰달월 서쪽, 신흥리와 경계에 있는 들을 말한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낮은 산으로 애장(어린이의 무덤)이 많았던 곳이었으나 남포저수지가 생기고 물이 풍부하자 논으로 개간하였다. 1980년대에 경지정리 되었다.
- 청룡끝 : 큰달월 마을 서쪽, 산줄기의 끝이다. 좌청룡에 해당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큰가루 : 달월 핫작굴 마을 서쪽에 위치한 사래가 긴 논.
- 큰달월 : 달월 마을의 남쪽 부분. 마을의 입구에 6기의 고인돌이 있다. 마을의 가운데에는 공동우물이 있는데 지하수위가 낮아 상당히 깊다.
- 테퇴 : 야동의 동쪽에 있는 산. 산 정상 부분을 둘러싼 테퇴식 산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성은 이중의 토성으로, 외부는 경사진 부분을 파 덧붙여 수직 절벽을 만들었으며 능선 부분은 양쪽에서 흙을 파 쌓아올렸다. 따라서 성벽 양쪽은 평지를 이룬다. 내부 토성도 외부와 같이 만들었는데 정상 부분이 평평하다.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정상부분과 서남쪽 외성의 안쪽이다.
- 테퇴재 : 불무굴에서 테퇴 남쪽을 통하여 옥서리로 넘어가는 재.

10 • 남포면

- 평말 : 평촌의 다른 이름
- 평촌 : 달산리 서쪽 끝에 있는 큰 마을. 과거에는 보통 번던말로 불렸다고 노인들이 확인하였다. 근래 젊은 사람들은 모두 평촌이라고 부른다.
- 허구재 : 작은달월, 큰달월에서 옥서리 새아니로 넘어가는 재. 옛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친절에 나들이 갔다 돌아오다가 길을 잃고 헤메다 죽었고, 며느리는 이 고개에서 시아버지를 울면서 기다리다가 지쳐 돌아오는데, 지나가는 호랑이도 그녀를 보고 해치지 않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남매가 지나다가 일어난 일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한다.(옥서리 참조)
- 호구치(虎口峙) : 허구재의 한자 표기.
- 핫작골 : 큰달월과 작은달월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 마을.



부흥재 성황당(1996)



큰달월(2008)

2. 봉덕리 (鳳德里)

본래 남포군 북내면(北內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관동(冠洞), 대덕동(大德洞), 환리(環里)와 옹곡리(甕谷里), 창동(倉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鳳山과 大德의 이름을 따서 봉덕리라 하여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되었다.

- 갓골 : 봉산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북정자 마을과 봉산 마을 사이에 있다. 요즘은 보통 관동(冠洞)이라고 부른다.
- 고루머리 : 봉덕리의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 노루의 머리에 해당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이현구 가옥이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되었다.
- 골논 : 봉산 마을과 알피 마을 사이에 있는 들.
- 공판 : 공판재 서남쪽, 봉산의 동쪽에 있는 평평한 곳이다. 옛날 나무하러 다닐 때

공치던 곳이다. 공치기는 나무를 다 한 뒤, 지계를 받쳐놓고 양편으로 나뉘어 놓던 놀이이다.

- 관동(冠洞) : 갓골의 한자식 표기.
- 관동넷갈 : 봉덕리의 가운데를 흐르는 도랑.
- 관동다리 : 관동 마을 서쪽에 있는 철교. 철도가 2007년 이설되었다.
- 관운장사당 : 대덕굴 마을 뒷산에 있던 사당. 관운장을 모셔서 붙여진 이름이다.
- 구레 : 장터말과 남포역 사이에 있는 들.
- 대덕굴 : 봉산 마을과 고루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 대덕동(大德洞) : 대덕굴의 한자 표기.
- 대덕동주막(大德洞酒幕) : 대덕굴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돌모랭이 : 대덕굴 마을에서 고루머리 마을로 통하는 모랭이.
- 등경산(登檠山) : 봉산의 다른 이름.
- 모산재 : 봉산에서 화덕굴로 넘어가는 재.
- 방죽거리 : 화덕굴 마을 동쪽에 있는 들.
- 방죽밭 : 독굴저수지 아래에 있는 들.
- 뱀굴 : 고루머리 마을 남쪽 골짜기.
- 병목안 : 봉산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병목처럼 입구가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봉덕1리 : 1반 고루머리, 2반 새터, 3반 북정자, 4반 농장, 5반·6반 관동.
- 봉덕2리 : 1반 대덕, 2반 봉산, 3반 역전, 4반 장터말.
- 봉덕리북정자 : 북정자 마을의 봉덕리 부분. 21호 국도의 서쪽이다.
- 봉산 : 봉덕리 서쪽 제석리와 소송리의 경계가 되는 산. 봉화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꼭대기에는 봉화터가 있다.
- 봉산 : 봉덕리의 서쪽에 있는 중심 마을.
- 봉산리(鳳山里) : 봉산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봉산리주막(鳳山里酒幕) : 봉덕리 봉산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봉산재 : 봉산 마을에서 화덕굴로 통하는 낮은 재. 언덕 꼭대기에 고인돌 1기가 있었는데 도로를 넓히느라 허물어, 덮개돌은 고개의 북쪽에 다리를 놓고(현재는 그 자리에 문힘) 받침돌 1개가 유홍식家の 마당에 있다. 이 고인돌 서북쪽에 묘를 쓰다가 돌칼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 봉황사(鳳凰寺) : 봉산 마을 서남쪽 병목골 입구에 있다가 없어진 절이다.
- 부영배 : 고루머리 마을 서쪽에 있는 산 정상. 삼각점이 있다. 높이 125.3m이다.
- 산제당 : 봉산 마을 서쪽 산기슭에 있다. 신수로 큰 소나무가 있으며 당집이 있었으나

12 • 남포면

현재는 없고 자리만 남아 있다. 30여 년 전까지 정월 보름 안에 택일해서 당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현재도 개인적으로 위하는 사람이 있는 듯 당집터가 정비되어 있다.

- 상보(上漕) : 고루머리 북쪽에 있는 보.
- 새암밭 : 고루머리 앞 들. 물이 많이 솟아나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새터 : 북정자 마을의 서쪽에 있는 마을. 대덕굴과 북정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새터 : 해장과 쪽골 사이에 있는 평평한 지형. 현재는 집이 없지만 옛날에는 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 서낭댕이 : 고루머리 마을의 북쪽, 마을 입구에 있었다. 신수로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 서낭댕이 : 봉산재의 서쪽에 있는 길옆에 있었다. 신수로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 성너머 : 고루머리에서 북정자 마을 앞들을 부르는 이름이다.
- 송골재 : 장터말에서 소송리 송골로 넘어가는 고개. 위에 5기의 고인돌이 있다.
- 아랫농장 : 봉덕리 동쪽 끝에 있는 마을. 일제시대 吉村謙一郎이 만든 농장이다. 밭 가운데에 가옥이 드문드문 있다.
- 알피 : 봉산 마을 동쪽, 알피 마을 북쪽에 있는 들.
- 알피 : 봉산 마을 동쪽에 내민 산. 전의 이 씨네 큰 묘가 있다.
- 어장 : 봉산 마을 동쪽, 알피의 끝이다. 옛 철도 건설로 말피의 끝을 파내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여우고개 : 봉산 마을에서 소송리 사청골로 넘어가는 고개.
- 역전 : 남포역 앞에 있는 마을.
- 연애다리 : 고루머리 마을 동북쪽에 있던 철교.
- 야건너 : 농장의 다른 이름.
- 이현구가옥 : 고루머리에 있는 상류층의 전통 기와집이었다. 화재로 소실되었다.
- 장터말 : 봉덕리 남쪽 끝 마을. 옛 철로 양쪽을 모두 장터말이라고 부른다.
- 장터말재 : 봉덕리 남쪽 장터말에서 옥서리로 넘어가는 고개.
- 정거정들 : 남포역 뒤쪽의 들. 큰독굴의 서쪽이다.
- 중메 : 대덕굴과 제석리 사이에 있는 산.
- 질우지 : 대덕굴 동쪽, 관동넷갈의 동쪽에 있는 들.
- 쪽굴 : 대덕굴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쪽굴재 : 대덕굴과 제석리 안대실 사이에 있는 재.
- 차랑굴 : 봉산 동쪽 마을.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차랑굴보 : 차랑굴 마을 서쪽에 있던 보.
- 테봉 : 봉산의 다른 이름. 봉화대를 보호하던 테피식 산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 표대거리 : 봉덕리 남쪽 끝 장터말의 남포역 신호대가 있는 곳.
- 해장(蟹腸) : 봉산 마을 북쪽, 화가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계의 배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해정뜰 : 해장의 다른 이름.
- 형제바위 : 역전 마을에서 소송리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에 있는 2개의 바위. 고인 돌이다.
- 형제바위고개 : 역전 마을에서 소송리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에 고인돌 2기가 있다.
- 흙덕굴 : 관동 마을 남쪽에 있는 낮은 골짜기.
- 화가재 : 봉산에서 제석리 대실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화덕굴 : 남포역 서북쪽에 있는 마을.
- 환리(環里, 고리머리) : 고루머리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봉덕리 전경(1989)



봉덕리 남포역 부근(2008)

3. 삼현리(三賢里)

본래 남포군 북내면(北內面)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조척포(造尺浦)와 제석동(帝碩洞), 후동(後洞)의 각 일부와 보령군 우라면(于蘿面)의 금암리(金庵里) 일부를 병합하여 삼현리(三賢里)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하였다.

- 간사지 : 삼현리 마을 남쪽에 있는 간척지 들.
- 개장굴 : 삼현리 동쪽 양머리와 용오쭈뿌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골말 : 군말의 다른 이름.
- 군말 : 세면이의 남쪽 부분을 통칭하는 이름.

14 • 남포면

- 깨참깨 : 조잠 마을 타방너머와 왕재 사이.
- 꿀뚝바위 : 조잠 마을 남쪽 산줄기의 끝에 있던 바위. 남포간척지공사로 없어졌다.
- 남포뒷굴 : 뒷굴의 과거 남포현에 속한 부분. 뒷굴 중 남포면 삼현리에 속한 부분이다. 요암동에 속한 부분을 보령뒷굴이라고 부른다.
- 당집 : 조잠 마을 서남쪽 언덕 위에 있다. 조잠 마을 사람들이 예부터 위하던 당집으로 당집 대들보의 상량문에 崇禎紀元後丙申捌月貳拾陸日辰時立柱上樑任坐原甲寅成造라고 써여 있는 것으로 보아 1656년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 도구머리 : 도금머리의 다른 이름.
- 뉘뿔모래 : 세면이 군말의 남쪽 부분.
- 뒷굴 : 삼현리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요암동과 경계되는 지역으로 예부터 요암동에 속한 부분을 보령뒷굴, 삼현리에 속한 부분을 남포뒷굴이라 불렀다.
- 뒷메 : 세면이 삼상 서쪽에 있는 낮은 산. 높이 29.5m이다.
- 벗뚝거리 : 삼현리의 동남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 용오쪽뿌리의 남쪽이다. 옛날 소금을 굽던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보령염전 : 삼현리 서쪽에 있던 염전이다. 1915년에 측도된 지형도에 제방은 완성되고, 염전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제시대 초기에 염전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염전이 매립되어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되었다.
- 삼곡(三谷) : 군말의 한자 표기.
- 삼상(三上) : 세면이의 북쪽 부분을 통칭하는 이름.
- 삼현(三絃) : 세면이의 한자 표기.
- 삼현1리 : 1반 상삼곡, 2반 중삼곡, 3반 윗조잠, 4반 아래조잠, 5반 하삼곡.
- 삼현2리 : 1반 후동, 2반 중삼상, 3반 하삼상, 4반 윗삼상.
- 삼현리(三賢里) : 삼현리 삼상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삼현리주막(三賢里酒幕, 벗뚝거리주막) : 벗뚝거리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새우논 : 뒷굴 서쪽에 있는 들.
- 서낭댕이 : 세면이 삼상 뒷메의 북쪽 부분. 도금머리 마을의 서쪽 언덕에 있었다. 신수로는 잡목이 있었다.
- 밭 : 뒷굴의 서쪽에 있는 주변의 논보다 높은 지형. 2개가 있었는데 동쪽에 있던 하나는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주변의 논보다 1.5m 정도 높아 밭으로 이용되고 가옥이 들어서 있다.
- 세면이 : 삼현리 중앙에 있는 중심마을을 예부터 부르는 이름이다. 과거에는 위뜸,

중뜸, 군말, 조잠으로 구분하였으나, 근래에는 행정동명을 따라 삼상(三上)과 삼곡(三谷)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 씨름장 : 채독재의 다른 이름. 옛날에 삼현리와 제석리 사람들이 모여 씨름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아까시밭 : 삼현리 서쪽 염전 제방을 일컫는 옛 이름. 아까시아 나무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915년에 축도된 지형도에 제방이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 조선시대 말에 제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 아래뜸 : 군말의 동쪽 부분
- 아래뜸 : 세면이 삼상의 남쪽 부분.
- 아랫말림 : 세면이 위뜸의 서쪽에 있는 산.
- 앵굴 : 세면이 마을과 옛 염전 사이에 있는 마을. 과거에는 작은 마을이었으나 근래 미산 보령댐 수몰민이 이주하여 많은 가옥이 들어서 있다.
- 양머리 : 삼현리 동쪽에 있는 낮은 언덕. 세면이 마을과 용오쪽뿌리 사이에 있었으나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 열두수문 : 조잠 마을의 남쪽 남포간척지의 수문.
- 왕박사리 : 조잠 마을의 동남쪽, 옛날 배를 대던 포구자리이다.
- 왕솔밭 : 군말 위뜸 남쪽에 있는 낮은 언덕. 높이 25.5m이다. 큰 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왕재 : 세면이 군말 서쪽에 있는 산. 높이 29.2m이다.
- 용오쪽뿌리 : 삼현리의 동쪽 끝에서 남쪽으로 뻗은 낮은 산의 끝부분.
- 원논 : 삼현리 마을과 양머리 사이에 있는 논. 간척 이전의 논이라는 뜻이다.
- 위뜸 : 군말의 서쪽 부분.
- 위뜸 : 세면이 삼상의 북쪽 부분.
- 유두께 : 조잠 마을의 중앙에 있는 옛 해안. 당집에 제를 지낸 후 이곳에서 유왕제를 지냈다고 한다.
- 이효자문 : 삼상 마을 삼거리에 있는 전주 이 씨인 李百貴의 효자문이다. 이백귀는 몹시 추운 겨울,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걱정하다 대나무 순을 구하여 병을 낫게 하였으나 다시 위독하여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 드려 3일 동안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전한다.
- 장태말림 : 삼현리 세면이 위뜸에서 뒷굴로 넘어가는 언덕.
- 잣마당 : 뒷굴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작은 언덕. 옛날에는 이곳에 소나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였다고 전한다.

16 • 남포면

- 조잠 : 삼현리의 남쪽 끝에 있는 옛날 포구가 있던 마을. 마을에는 1656년에 세워진 당집이 있다.
- 조척포(造尺浦) : 조잠의 옛 한자 표기.
- 조척포리(造尺浦里, 조잠포) : 조잠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조척포주막(造尺浦酒幕, 조잠포주막) : 삼현리 조잠 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척포포구(造尺浦浦口, 조잠포) : 삼현리 조잠 포구 <1911, 朝鮮地誌資料>
- 지석굴재 : 삼현리 뒷굴에서 제석리 지석굴로 넘어가는 낮은 언덕. 언덕의 북쪽에 구멍과 원을 새긴 화강암 고인돌이 있다. 지석굴에서는 뒷굴재라고 부른다.
- 채독재 : 삼현리 세면이 위뜸에서 제석리 지석굴로 통하는 언덕. 차돌이 있어서 채독재라 불렀다고 하며 씨름장이라고도 부른다.
- 큰쪽다리 : 세면이 삼상 아래뜸과 삼곡 위뜸에서 남포간척지 축조 이전의 해안선을 따라 양머리, 개장굴, 벃둑거리 쪽으로 통하는 길에 있던 다리이다. 큰 돌로 놓여 있었다고 전한다.
- 타방너머 : 조잠 마을의 서쪽 부분.
- 황기뜰 : 대천 요암동에서 삼현리로 들어오는 큰 길목에 있는 간척지 들.
- 황뜰계 : 삼상 마을과 삼곡 마을 사이이다. 주변에 황토 땅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황우재 : 왕재의 다른 이름. 이곳에 황소 머리 모양의 명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회사계 : 세면이 마을과 옛 염전 사이에 있는 앵굴의 서쪽 부분. 남포간척지 방조제 건설공사 때 동아건설의 사무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후동(後洞, 뒤굴) : 삼현리 뒷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혼새굴 : 삼현리의 동쪽 끝, 제석리와 의 경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가옥이 2채 있다. 마을 뒤 소나무 숲 속에는 고인돌로 보이는 돌이 있다.



삼상 마을 전경(1996)



이백귀 효자문(2008)

4. 소송리(巢松里)

본래 남포군 북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소은동(巢隱洞), 내송동(內松洞), 외송동(外松洞), 봉산리(鳳山里) 일부와 군내면(郡內面)의 월촌(月村) 일부를 병합하여 소은(巢隱)과 내송(內松)의 이름을 따서 소송리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되었다.

- 간사지 : 소송리의 서남쪽 번개들의 남쪽에 있는 간척지.
- 강구할머니바위 : 소뱅이 함박굴 뒤에서 사청굴로 통하는 빗득재에 있는 납작한 바위이다. 강구할머니가 오줌을 싸 바위 가운데가 팽겨났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로, 고인돌로 보이는데 최근 없어졌다.
- 개사리 : 소송리 마을의 서쪽 끝 부분에 있는 마을. 과거에는 주민의 거주가 없었으나 남포 간척지 축조 후 주민이 들어왔다.
- 건달이 : 송골 북쪽 언덕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 마을과 남동마을 사이 골짜기.
- 관모바위 : 당살미 남쪽에 있는 7기의 고인돌 중 관모처럼 생긴 작은 돌.
- 구적들 : 소송리 마을 앞에 있는 들. 구적밭이라고 부르는 20여 마지기의 밭이 있었는데 모두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전한다. 구적들보에서 물을 대었다.
- 구적들보 : 새내에 있던 보. 오리보와 마랫들보 사이에 있었다. 구적들에 물을 댐.
- 국사봉 : 작은소뱅이 북쪽에 있는 산. 봉산의 서남쪽 봉우리이다.
- 깊은골 : 작은소뱅이 서쪽 골짜기. 꿩골과 살가지골 사이로 순달이골이라고도 함..
- 꿩골 : 작은소뱅이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국사봉의 남쪽이다.
- 꿩골 : 제석리 개사리에서 소송리 개사리로 넘어오는 고개.
- 낚은터 : 함박굴과 당살미고랑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 남동(南東) : 건달이와 사청굴 사이의 남동골에 있는 작은 마을.
- 남동골 : 소송리 북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 건달이와 사청골 사이에 있다. 형제바위 고개로 남포면 봉덕리와 통한다.
- 내송(內松) : 소뱅이의 중심 마을. 작은소뱅이(빳소뱅이)와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
- 내송리(內松里, 다리안) : 소뱅이 마을. 다리안이라는 지명은 쇠내를 건너는 다리 안쪽 마을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 같으나 소멸되었음. <1911, 朝鮮地誌資料>
- 내송주막(內松酒幕, 다리안주막) : 소송리 소뱅이마을 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노승쟁이 : 소송리와 옥서리 월구리 사이에 있는 산의 남서쪽 끝.
- 누에머리 : 사청굴 마을과 빗득재 사이에 내민 작은 산줄기의 끝. 누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8 • 남포면

- 당살미 : 소뱅이 함박굴과 당살미고랑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의 남쪽 부분. 지명으로 보아 옛날에는 당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노인들도 당집이나 당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 당살미고랑 : 소송리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의 남쪽 부분.
- 등경산(登檠山) : 소송리 북쪽에 있는 산 이름. 옛 봉화대가 있었다. 풍수지리상 등잔거리에 해당되어 등경산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다. 봉산, 태봉, 오봉산 등으로 불린다.
- 마랫들 : 소송리 남쪽에 있는 큰 들. 오래 전부터 농사지어 오던 들이다.
- 마랫들보 : 새내에 있던 보. 오래이보와 구적들보 사이에 있었다. 소송리 앞들에 물을 대었다.
- 무르재 : 송골 마을에서 남쪽에 있는 옥서리로 통하는 재.
- 밧소뱅이 : 작은소뱅이의 다른 이름.
- 번개들 : 소송리 서남 마을 앞에 있는 들. 속들의 서쪽이다.
- 봉산 : 소송리 북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는 옛 봉화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 봉화터 : 봉산 꼭대기에 있던 옛 봉화터.
- 빗뜰재 : 소뱅이 마을 북쪽 산 밑으로 해서 사청골로 넘어가는 낮은 언덕. 언덕 위에 강구할머니 바위가 있다.
- 사당굴 : 소송리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북쪽 끝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에 성주이씨 도은 이승인(李崇仁) 공의 사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 사당은 웅천읍 두룡리로 옮겨졌다(土昌祠).
- 사모봉 : 오성개미 북쪽에 있는 봉우리. 봉산(등경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형성된 봉우리이다.
- 사청굴 : 소송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북쪽에 있는 마을. 사당굴이라고도 한다.
- 살가지골 : 작은소뱅이 서쪽에 있는 골짜기. 깊은골의 서쪽에 있다.
- 서낭댕이 : 소뱅이에서 옥서리 얼구리(월촌)으로 넘어가는 고개(원칭머리고개)의 꼭대기에 있었다. 신수로 느티나무가 있었다. 고속도로가 지난다.
- 선바위 : 당살미 남쪽에 있는 고인돌. 덮개돌이 비스듬하게 쓰러져 서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변에 7기의 고인돌이 있다.
- 세집매 : 오성개미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세집매골 : 오성개미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소골재 : 송골에서 봉덕리 장터말로 통하는 재.
- 소뱅이 : 소송리의 중앙에 있는 중심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성주

이 씨의 집성촌이었으나 많은 가구가 외지로 이주하고, 남포 간척지 축조 이후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거주한다.

- 소은동(巢隱洞, 송골) : 소송리 송골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속들 : 소뱅이 마을과 마랫들 사이의 들. 소뱅이 앞을 지나는 하천의 안쪽이다.
- 송골 : 소송리의 동쪽 끝에 있는 마을. 봉덕리의 장터말과 연결된다.
- 송골고랑 : 송골 앞 들.
- 송골재 : 송골에서 봉덕리 남포역으로 통하는 고개. 고개 꼭대기에 5기의 고인돌이 있다.
- 순달이골 : 작은소뱅이 서쪽에 있는 골짜기. 꿩골과 살가지골 사이에 있다. 깊은골 이라고도 한다.
- 아래뜸 : 소뱅이 마을의 남쪽 부분.
- 여수고개 : 소송리 사창굴에서 봉덕리 봉산 마을로 통하는 고개.
- 오랙이보 : 새내에 있던 보. 마랫들보 밑에 있었다. 달산리 평촌 북쪽의 들에 물을 대었다.
- 오봉산(五峰山) : 소송리 북쪽에 있는 산 이름. 옛 봉화대가 있었다. 테봉, 등경산 등으로 불린다. 봉우리가 5개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오성개미 : 소뱅이 마을 서쪽 쪽쪽골과 태랑골 사이에 있는 낮은 산줄기. 산줄기의 위 부분에 6기, 중간에 1기의 고인돌이 있다.
- 옷샘 : 송골 마을 남쪽 옷샘고랑의 입구에 있다.
- 옷샘고랑 : 송골 마을 앞에 남쪽으로 난 골짜기.
- 외송(外松) : 밧소뱅이(작은소뱅이)의 한자식 표기.
- 외송주막(外松酒幕) : 소송리 밧소뱅이 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원청머리 : 옥서리, 달산리와 소송리의 경계 지역이다. 풍수지리상 좌청룡의 끝 부분이다.
- 원청머리고개 : 옥서리 열구리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 서낭멍이가 있었다.
- 위뜸 : 소뱅이 마을의 북쪽 부분.
- 작은소뱅이 : 소송리 마을의 서쪽 부분.
- 잿밭 : 소뱅이 마을 위뜸 북쪽에 있는 밭. 8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 쪽쪽골 : 소뱅이 마을과 세집매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의 북쪽은 강당골이다.
- 칠성바위 : 당살미 남쪽에 있는 바위. 7개의 고인돌이 북두칠성처럼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0 • 남포면

- 태랑골 : 작은소뎡이 동북쪽의 큰 골짜기. 골짜기 아래에 작은 소류지가 있다.
- 테봉 : 소송리 북쪽에 있는 산이다. 꼭대기에는 옛 봉화대가 있고, 이를 둘러싼 석성이 있다. 테피식 산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산, 등경산 등으로 불린다.
- 평밭산 : 소송리와 옥서리 월구리 사이에 있는 산. 서낭댕이 남쪽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고속도로가 지난다.
- 함박굴 : 소뎡이 마을과 낚은터 사이에 있는 낮은 골짜기.
- 형제바위 : 소송리 남동 마을에서 봉덕리 남포역으로 통하는 고개 꼭대기에 있는 2개의 바위. 고인돌이다.
- 효방(孝方) : 소뎡이의 한자 표기.
- 효자문 : 소뎡이 마을 입구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성주 이 씨 李善元의 효자문이다.



등경산 성터(2004)



소송리 전경(2008)

5. 신흥리(新興里)

본래 남포군 신안면의 새로 이룩된 마을이므로 새말 또는 신촌(新村) 신흥(新興)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매천리(梅川里), 봉촌(烽村), 상신리(上新里), 하신리(下新里), 대달리(大達里) 일부를 병합하여 신흥리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하였다.

- 가운데뜸 : 봉촌 마을의 가운데 부분.
- 건너뜸 : 봉촌 마을의 남쪽 부분.
- 검뿌리 : 봉촌 마을 서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
- 고양나무굴 : 봉촌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봉천 마을과 초분골 사이에 있다.
- 고인돌 : 봉촌 마을 회관 앞 백토개에 있다. 언덕 위에 여러 기의 고인돌이 있다.

- 공판 : 봉촌 마을 남쪽 골짜기 입구에 있는 평평한 곳. 즉 원재의 입구로 옛날 나무꾼들이 공을 치던 곳이다.
- 광대박굴 : 매천소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 유두박굴과 야차리굴 사이에 있다.
- 구레 : 봉촌 마을 서쪽에 있는 들. 다랭이골의 동쪽이다.
- 구멍재 : 새말(신촌)에서 음나무골로 넘어가는 고개.
- 구봉산 : 봉화산의 다른 이름.
- 꽃밭재 : 매내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초분골의 남쪽이다.
- 꽃밭재 : 매내 마을 동쪽에 있는 221.9m의 산. 무주공산, 바람재라고도 부른다.
- 네밑이 : 매천소류지 동쪽에 있는 평평한 지형.
- 다랭이골 : 새말과 봉촌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봉촌소류지로 향한 골짜기이다.
- 동구산못 : 동구산 마을 위에 막은 작은 저수지. 1960년대에 만들었는데 홍수에 매몰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 동구산 : 신흥리 남쪽 끝에 있는 마을. 큰솔개재의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 매내 : 봉촌 마을과 달산리 큰댁월 사이에 있는 마을.
- 매봉재 : 신흥리 서쪽 새터 마을과 음나무굴 사이에 있는 산. 높이 64.1m이다.
- 매천(梅川) : 매내의 한자식 표기.
- 매천소류지 : 봉촌 마을 서쪽 매내 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저수지.
- 무주공산 : 매내 마을 동쪽에 있는 산. 꽃밭재, 바람재라고도 부른다.
- 바람재 : 매천 마을에서 웅천읍 두룡리 이어니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바람이 센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백토개 : 봉촌 마을 회관 옆 고인돌 있는 곳. 백토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 보통 : 매천 소류지 남쪽에 있는 옛 보.
- 봉촌(烽村) : 1960년대 신흥리 2구(烽村, 新村) 중 1구.
- 봉촌(烽村, 봉의땀) : 신흥리 봉촌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봉촌 : 신흥리의 중심 마을. 마을의 동쪽에 봉화산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건너땀, 가운데땀, 아래땀으로 나누어지고 많은 고인돌이 있다. 한말~일제시대 보령 갑부였던 김윤환의 고향이다.
- 봉촌소류지 : 다랭이골 위에 있는 작은 저수지.
- 봉화산 : 봉촌 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 높이 233.7m이고 옛날 봉화터가 남아있다.
- 부영재 : 매내 마을에서 큰댁월로 통하는 들.
- 봉구데기 : 마을 회관 서쪽의 낮은 언덕 너머를 지칭하는 이름.
- 삼재 : 신흥리 남쪽, 웅천읍 두룡리와 경계에 있는 산. 원재와 꽃밭재 사이이다.

22 • 남포면

- 상신(上新) : 위새말의 한자 표기.
- 상신리(上新里,시말) : 신흥리 새말의 동쪽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상아시 : 새말(新村)의 다른 이름.
- 상아티골 : 새말 앞에서 큰솔개재로 향한 골짜기.
- 새말 : 신흥리의 남쪽 봉촌 마을의 서쪽에 있는 마을. 신촌이라고도 불린다.
- 새말재 : 음나무골 마을에서 새터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새터 : 신흥리 서쪽에 있는 마을. 양항리 양아다리의 바로 남쪽에 있다.
- 소당재 : 봉촌 마을 회관의 남쪽에 있는 낮은 언덕.
- 소리개재 : 둥구산 마을과 양기리 강당 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
- 쇠마당 : 신흥리 남쪽 다랭이골 위에 있는 평평한 지형. 옛날에 소를 많이 매어 붙여진 이름인데 근래 밭으로 개간되었다.
- 수라골 : 수자골의 다른 이름.
- 수자골 : 매내 마을과 달산리 큰달월 사이에 있는 골짜기. 수라골이라고도 한다.
- 수챙이 : 봉촌 마을과 매내 마을 사이에 있는 들.
- 신기(新基) : 새말과 새터를 통칭하는 옛 이름. 上新(새말) 下新(새터)으로 구분하였다.
- 신안사(新安祠) : 신흥리 매내에 있던 옛 서원이다. 주자, 이제현, 백이정, 송시열, 한원진, 권상하가 배향되었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 신촌(新村) : 1960년대 신흥리 2구(烽村, 新村) 중 1구. 새말의 한자식 이름.
- 신흥1리 : 1반 매내, 2반 상뜸, 3반 중뜸, 4반 하뜸.
- 신흥2리 : 1반 새터, 2반 새말, 3반 음나무골.
- 아래뜸 : 봉촌 마을의 북쪽 부분.
- 아래새말 : 새말(신기)의 아래쪽 부분.
- 아래새말 : 새터의 다른 이름.
- 아홉마지기 : 봉촌 마을 서쪽, 도로 아래에 접해있던 큰 논이었다.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경지정리로 모두 합하여졌다.
- 아홉마지기들 : 신흥리 북쪽 끝. 양항리와 달산리의 경계 지역에 있는 들.
- 양아다리골 : 양항리 양아다리와 새터 사이에 있는 논.
- 양촌등생이 : 음나무골 마을과 양기리 양촌 사이에 있는 언덕.
- 엄나무골 : 음나무골의 다른 이름. 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연치(鳶峙) : 소리개재의 한자 표기.
- 원재 : 봉촌 마을에서 웅천읍 두룡리 원골로 넘어가는 고개. 도로가 개설됨
- 위새말 : 새말(신촌)의 위쪽 부분. 과거에 부르던 이름이다.

- 유두박굴 : 매천소류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초분골과 광대박굴 사이에 있다.
- 은고개 : 매내 마을에서 수자골로 넘어가는 고개.
- 음나무골 : 신흥리 서쪽 도로변에 있는 마을.
- 음나무골 : 음나무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음박굴 : 음나무골의 다른 이름.
- 절터 : 매천소류지 위에 절터가 있다. 지금도 대밭이 있고 기와가 출토되는데, 마을 주민 몇 사람은 지금도 이곳에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옛날 이곳에 살던 어린 동승(童僧)이 근처의 폭포에 빠져 죽었는데, 그 후 동승의 넋이 중을 괴롭혀 모두 떠나고 폐사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주자서원(朱子書院) : 매내에 있던 신안사(新安祠). <1911, 朝鮮地誌資料>
- 초분골 : 매천소류지 남쪽 골짜기. 옛날 초빈을 했던 곳이라고 전한다.
- 평밭 : 신흥리 북쪽에 있는 들. 수창이의 북쪽이다.
- 하신(下新) : 아랫새말의 옛 한자 표기.
- 향잠 : 봉촌 마을 북쪽에 있는 들.



봉촌 마을(1996)



봉촌 마을(2008)

6. 양기리(陽基里)

남포군(藍浦郡) 신안면(新安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촌(陽村), 암촌(岩村), 상기동(上基洞), 하기동(下基洞), 영전리(令田里) 일부를 병합하여 양촌(陽村)과 기동(基洞)의 이름을 따서 양기리(陽基里)라 하여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하였다.

- 가는골고랑 : 아래턱굴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할무재골과 큰골고랑 사이에 있다.
- 가래밭 : 아래턱굴 서쪽, 대자울재 동쪽에 있는 밭.

24 • 남포면

- 강당 : 곡촌 북쪽에 있는 마을.
- 강풍들 : 위턱굴과 신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의 옛 이름. 주변의 들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 갱구할매바위 : 곡촌 마을 서쪽, 저수지 제방 양쪽에 바위가 있었는데 길게 골이 패어 있었다. 갱구할머니가 오줌을 누어서 패인 것이라고 한다. 통수배바위라고도 한다. 고인돌로 추정된다.
- 곡촌(谷村) : 양기리 중앙에 있는 큰 마을. 마을 안에는 많은 고인돌이 있다.
- 곡촌(谷村,골말) : 양기리 곡촌. <1911, 朝鮮地誌資料>
- 곡촌앞들 : 곡촌 마을과 제민저수지 사이에 있는 들.
- 곡촌저수지 : 제민저수지의 다른 이름.
- 골말 : 곡촌(谷村)의 순수 우리말 이름. 현재 노인들도 골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나 1911년 조선지리지자료에 ‘골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 공동묘지산 : 신머리 마을 북쪽에 있는 산.
- 팽이바위 : 제민저수지 남쪽 제방 밑에 있는 바위. 고인돌로 경지정리 때 훼손된 후 복원하였다.
- 구레들 : 제민저수지 서쪽에 있는 들.
- 기동(基洞) : 1960년대 양기리 2구(陽村, 基洞) 중 1구. 턱굴의 한자 표기.
- 피갈봉 : 두루니재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161.9m이다.
- 대자울재 : 월전리 대자울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고개. 월전리와의 경계이다.
- 도챙이 : 양기리 북쪽 끝 새밭 마을의 다른 이름.
- 동산 : 아래턱굴과 위턱굴 사이에 있는 산. 안산이라고도 부른다.
- 두루니재 : 곡촌에서 웅천읍 두룡리 두루니로 넘어가는 재. 웅천읍 두룡리에서는 신안재라고 부른다. 꼭대기에는 서낭당이 있고 큰 팽나무가 있었으나 쓰러졌다.
- 둥구산 : 양기리 북동쪽에 있는 산. 웅천읍 두룡리와 경계를 이룬다. 삼각점이 있으며 높이 277.8m이다.
- 듬배골 : 곡촌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절골과 상아태골 사이에 있다.
- 무이산(武夷山) : 곡촌 마을 동쪽의 제일 높은 산. 옛날에 봉화를 올렸다고 전한다.
- 방아집도래 : 곡촌 마을 남쪽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
- 범기샘 : 범씨촌에 있는 샘. 지금도 많은 물이 나온다.
- 범씨촌(范村) : 아래턱굴의 서쪽 부분. 옛날 이곳에 범 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불무재 : 턱굴 마을에서 참새골을 지나 곡촌으로 넘어가는 고개.

- 삼거리제언(三巨里堤堰, 양촌방죽) : 양촌에 있던 방죽. <1911, 朝鮮地誌資料>
- 상기(上基) : 위턱굴의 한자 표기.
- 상아태골 : 강당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양기리의 북쪽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밭 : 양기리 북쪽 끝에 있는 마을. 양항리와와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로 마을의 위땸은 양항리에 속한다.
- 새밭골 : 새밭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새밭공동묘지 : 새밭 동쪽에 있는 공동묘지. 양기리, 양항리, 신흥리의 경계 지역이다.
- 새밭등생이 : 양기리의 서북쪽에 있는 낮은 언덕. 진틀과 새밭골 사이에 있다.
- 새암굴 : 아래턱굴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서낭댕이 : 곡촌 마을 동남쪽 웅천읍 두룽리 두루니로 이어지는 두루니재 꼭대기에 있다. 신수는 팽나무였으나 부러졌다고 한다.
- 수굴재 : 위턱굴 남동쪽의 산줄기. 아래턱굴 큰골고랑과 위턱굴 절굴 사이에 있다.
- 신두(新頭) : 신머리의 한자 표기.
- 신머리 : 턱굴 마을 서쪽, 공동묘지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반월(半月)의 형국이라 15호 이상 살지 못한다는 전설이 전한다.
- 신머리공동묘지 : 신머리 마을 북쪽에 있는 공동묘지.
- 신머리등생이 : 위턱굴에서부터 신머리 마을 뒤쪽까지 이어지는 낮은 언덕.
- 신안재 : 두루니재의 다른 이름. 남포면 서부지역이 옛 신안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신안치(新安峙) : 신안재(두루니재)의 한자 표기.
- 신전(新田) : 새밭의 한자 표기.
- 아래턱굴 : 턱굴의 남쪽 부분. 위턱굴보다 큰 마을이다.
- 안산 : 아래턱굴과 위턱굴 사이에 있는 산. 동산이라고도 부른다.
- 야치(冶峙) : 불무재의 한자 표기.
- 양기1리 : 1반 새밭리, 2반 강당, 3반 여마을, 4반 곡촌.
- 양기2리 : 1반 상기, 2반 하기, 3반 신머리.
- 양촌(陽村) : 양기리 북쪽에 있는 마을. 1960년대 양기리 2구(陽村, 基洞) 중 1구.
- 양촌(陽村, 양지편) : 양촌 마을. ‘양지편’ 지명은 없어짐. <1911, 朝鮮地誌資料>
- 양촌등생이 : 양촌 마을과 신흥리 음나무골 사이의 언덕. 포장 도로가 지난다.
- 양촌앞 : 양촌 마을 북쪽에 있는 들.
- 여말리 : 월전초등학교가 있는 마을.

26 • 남포면

- 위뜸 : 새밭 마을의 남쪽 부분. 새밭의 위뜸은 양기리에 속하고, 아래뜸은 양항리에 속한다.
- 위턱굴 : 턱굴의 북쪽 부분. 마을 안에 큰 은행나무가 있다.
- 윗산골다랭이방죽 : 위턱굴 동쪽, 산아래에 산 계곡을 따라 다랭이 논이 있었는데 1960년대 조그만 소류지를 만들어 곡촌저수지 위뜰에 물을 댔다. 청천저수지 수로가 생기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였다가 지금은 방죽 아래 일부에만 물을 공급한다.
- 작은두루니재 : 두루니재에서 턱굴 쪽으로 통하는 길.
- 작은솔개재 : 곡촌 마을에서 강당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절굴 : 위턱굴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수굴재와 참새굴 사이에 있다.
- 제민저수지 : 양기리 중앙에 있는 저수지. 일제시대에 막은 저수지이다.
- 제민제(濟民堤) : 제민저수지의 다른 이름.
- 중뜸 : 강당 마을과 여말리 사이에 있는 마을.
- 진틀 : 양촌 마을 서쪽 들 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과 그 주변의 들.
- 참새굴 : 위턱굴 북쪽에 있는 골짜기. 월전초등학교 앞 저수지로 통한다.
- 청룡쪽뿌리 : 참새굴과 곡촌 앞들 사이에 있는 산줄기의 끝. 불무재의 서북쪽이다.
- 큰골고랑 : 아래턱굴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골재의 밑에 있다.
- 큰골재 : 아래턱굴의 남동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45.9m이다. 이곳을 넘어 웅천읍 구룡리 용안리로 통한다.
- 큰솔개재 : 강당 마을에서 신흥리 새밭로 넘어가는 고개.
- 턱굴 : 양기리 남쪽에 있는 큰 마을. 아래턱굴과 위턱굴로 구분된다.
- 턱굴은행나무 : 위턱굴 마을 위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예부터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선비들이 글을 읽었다고 전한다. 수십 년 전 본 나무는 고사하고 옆에서 새 순이 나와 아름답리가 되었다고 한다.
- 통수배들 : 곡촌 마을 앞 들을 부르는 이름. 항상 물이 풍부하였다. 1930년대에 이 물을 이용하여 월전초등학교 앞에 제민제를 축조하였다.
- 통수배바위 : 갯구할매바위의 다른 이름.
- 하기(下基) : 아래턱굴의 한자 표기.
- 할무재 : 아래턱굴의 동남쪽에 있는 고개. 웅천읍 구룡리 비하재로 통한다.
- 할무재골 : 아래턱굴의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 위에 할무재가 있고 이곳을 넘어 웅천읍 구룡리 비하재로 통한다.
- 함박골 : 곡촌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방아집도래와 듬배골 사이에 있다.



턱굴(2008)



신머리(1996)

7. 양항리(梁項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신안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아리(梁牙里), 의항리(蟻項里), 방항리(防項里)를 병합하여 양아(梁牙)와 의항(蟻項)의 이름을 따서 양항리라 하고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하였다.

- 간사지 : 개목 마을과 밤섬 사이에 있는 간척지.
- 개목 : 양항리 중앙에 있는 중심 마을. 건너뜸, 아래뜸, 개장굴로 구분된다. 지형이 개미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말이 전한다.
- 개목앞들 : 방목 마을과 개목 마을 사이에 있는 들. 원논이라고도 한다.
- 개장굴 : 개목 마을의 남동쪽 부분.
- 거먹바위 : 밤섬 북동쪽 마을 가운데에 있던 바위.
- 건너뜸 : 개목의 북쪽 부분.
- 공동묘지 : 양항리 남쪽 새밭 마을 동쪽에 있는 공동묘지.
- 구석굴 : 양항리의 동남쪽 끝에 있는 들. 검뿌리의 북쪽에 있는 들이다.
- 다막굴고랑 : 양아다리와 담박굴 마을 사이의 골짜기.
- 닭바위 : 방목과 수리섬 사이에 있던 애석으로 된 바위. 채석되어 없어졌다.
- 담박굴 : 개목 마을과 양아다리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포장도로가 지난다.
- 뒷들 : 양아다리 동쪽 언덕너머에 있는 들.
- 망중바위 : 밤섬 남서쪽 끝에 있던 바위. 간척사업 이전 이곳에서 낚시질을 하곤 하였다. 이곳에 이어 제방을 축조하였으며, 간척사업으로 바위도 없어졌다.
- 밤섬 : 양항리 서북쪽에 있는 섬. 섬의 남단과 북단에 제방을 축조하여 남포간척지를 만들었다. 간척사업 이전에는 2가구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가옥이 있다.

28 • 남포면

- 방목 : 양항리 남쪽에 있는 마을. 양촌등생이에서 바다쪽으로 길게 뻗은 낮은 능선 끝의 남쪽 부분에 있는 마을이다.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방목앞들 : 방목 마을 남쪽과 쇧들 마을 사이에 있는 들.
- 방항(防項) : 방목의 한자 표기.
- 붉은산 : 개목 마을 북쪽 끝에 있는 산. 소나무가 울창하다. 높이 15.7m이다.
- 뽕통산 : 방목 아래뜸 서쪽에 있는 작은 산. 애석(화강암)으로 되어있어 근래 채석하여 없어졌다.
- 새밭 : 양항리 남쪽 양기리와 접경에 있는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나뉘는데 위뜸은 양기리, 아래뜸은 양항리에 속한다.
- 새원안들 : 개목 마을 북쪽 간척지와 접한 곳. 새로운 간척지 이전에 농사를 짓던 곳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서낭당이 : 답박굴 북쪽 언덕, 개목으로 통하는 삼거리에 있었다.
- 소평(素坪,쇠들) : 남포면 양항리 방목 남쪽의 들. 바닷가 사구(砂丘)의 순수 우리말인 '술등'에서 나온 이름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솔머루 : 개목 마을 동쪽에 있는 산줄기의 끝. 서낭당의 북쪽 끝이다.
- 쇧들 : 양항리 남쪽에 있는 들.
- 쇧들 : 양항리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의 일부는 월전리에 속한다.
- 수리섬 : 방목 마을과 밤섬 사이에 있는 작은 섬. 최고 높이 20.7m이다. 섬의 동쪽과 서쪽에 주민이 거주한다. 남포간척지 축조 후 인구가 증가하였다.
- 수석농장 : 파라다이스농장의 다른 이름.
- 솟들번덕 : 방목 서쪽에 있는 사구.
- 솟들장벌 : 양항리 서쪽 해안에 있는 사구. 최고 높이는 16m에 이른다. 1970년대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현재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장벌의 남쪽 부분은 과거 바닷물이 들어오는 늪지였는데 모래로 메워지고 방풍림이 들어섰다.
- 아래뜸 : 개목의 중앙 부분.
- 아래뜸 : 방목 마을의 서북쪽 부분. 마을의 뒤쪽에는 잘록한 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이곳을 끊어서 마을이 망했다는 전설이 있다.
- 아래뜸 : 새밭 마을의 북서쪽 양항리 부분.
- 아래쇧들 : 쇧들 마을의 남쪽 부분.
- 양아(梁牙) : 양아다리의 한자 표기.
- 양아다리굴 : 양아다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들.
- 양아다리 : 양항리 동쪽 끝 마을. 신흥리와 접경지역에 있다.

- 양향1리 : 1반 양아다리, 2반 방목, 3반 우평.
- 양향2리 : 1반 하뜸, 2반 중뜸, 3반 건너뜸, 4반 술섬, 5반 윗밤섬, 6반 아랫밤섬.
- 용문재 : 양아다리 북쪽에 있는 낮은 재. 후뚜백이와 매봉재 사이에 있다.
- 우평(牛坪) : 쇯들의 한자 표기. 쇯들은 사구의 순수 우리말인 술등에서 나온 말임.
- 원논 : 방목 마을과 개목 마을 사이에 있는 들. 개목앞들이라고도 한다.
- 원뚝 : 개목 마을과 방목 마을 사이에 있는 옛 간척지 제방.
- 원뚝 : 새밭과 양아다리 사이에 있는 뚝. 도로가 통한다.
- 원촌 : 수리섬의 다른 이름. 수리섬의 주민들이 근래 지은 이름이다.
- 위뜸 : 방목 마을의 동남쪽 부분.
- 위쇯들 : 쇯들 마을의 북쪽 부분.
- 울도(栗島) : 밤섬의 한자 표기.
- 의항(蟻項) : 개목의 한자 표기.
- 집넘어 : 개목 마을 동쪽 언덕너머에 있는 들.
- 파라다이스농장 : 방목 마을 서쪽에 있는 사구. 파라다이스회사에서 포도를 재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회사 이름이 수석농장으로 바뀌어 요즘은 수석농장이라고 부른다.
- 후뚜백이 : 양아다리 마을 북쪽에 있는 산. 높이 29.0m이다.



방목(1996)



밤섬(2008)

8. 옥동리(玉東里)

본래 남포군 군내면(郡內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교촌(校村) 동조리(東鳥里)와 동리(東里) 서리(西里)의 각 일부와 북내면(北內面)의 용암리(甕岩里) 일부를 병합하여, 뒤에 있는 玉馬山과 東鳥의 이름을 따서 玉東里라 하여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하였다.

30 • 남포면

- 가는골 : 향교굴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뒤편의 북쪽이다.
- 공동묘지 : 큰독굴 남쪽에 있는 공동묘지. 공동묘지의 서남쪽에 변전소가 들어서 있다.
- 과목전 : 향교굴 아래뜰에 있는 밭을 부르는 이름.
- 교촌(校村) : 향교굴의 한자 표기.
- 구름다리 : 옥마선에 설치된 다리를 부르는 이름. 21호 국도 위를 통과한다.
- 꽃집 : 큰독굴 꼭대기 철도 너머에 있는 집. 꽃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년추굴 : 향교굴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노척골 : 향교말 남쪽에 있는 계곡이다.
- 독굴산 : 큰독굴 북쪽에 있는 산. 공설운동장 옆이다.
- 독굴앞산 : 옥동리 서쪽 서세굴의 앞 산. 공동묘지의 위 부분이다.
- 독굴저수지 : 큰독굴의 가운데에 있는 소류지.
- 동조개(東鳥介) : 동지개의 한자 표기.
- 동지개 : 작은독굴고랑 북쪽에 있는 마을. 창동리 고야실과의 경계에 있다.
- 동지개 : 창동리 고야실에서 옥동리 동지개로 통하는 고개.
- 돼지봉 : 향교굴 동쪽 산봉우리. 창동리, 성주면 개화리 사이의 고개이다. 잉굴재라 고도 부른다. 높이 472.0m이다.
- 뒤편 : 향교굴 동남쪽에 있는 경사가 급한 산사면. 년추굴과 가는골 사이이다.
- 둥병이고랑논 : 큰독굴 아래뜰에 있는 논. 논에 둥병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둥병이고랑 : 징그래미 마을 앞 들.
- 마치(馬峙,말지) : 말재 <1911, 朝鮮地誌資料>
- 막바지 : 동지개 마을과 창동정수장 사이에 있는 낮은 재.
- 말재고랑 : 옥동리 향교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읍내리와의 경계지역에 있다.
- 머구나무굴 : 향교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머구나무(오동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모과나무굴 : 향교굴 남동부에 있는 골짜기. 말재고랑과 년추굴 사이에 있다.
- 밤나무굴 : 향교굴 남동쪽에 있는 년추굴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 밥봉말랭이 : 향교굴 동쪽 잉굴재의 바로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425.4m이다.
- 배나무굴 : 향교굴 북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부처샘 : 향교굴 동쪽 산 중턱에 있는 샘. 가는골과 잉굴재고랑 사이에 있다.
- 상교굴 : 향교굴의 다른 이름.
- 상보 : 향교굴 아래뜰 남쪽에 있던 보.
- 생교굴 : 향교굴의 다른 이름.

- 서낭댕이 : 향교굴에서 동지개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 있다. 신수로 큰 모과 나무가 있었으나 없어졌다.
- 서세굴 : 옥동리의 북서쪽 끝 마을. 21호 국도의 동쪽. 공설운동장의 서남쪽 마을이다. 봉덕리, 창동리와 경계한다.
- 수랑배미 : 큰독굴 독굴저수지 서쪽의 들. 수령논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래뜸 : 향교굴의 서쪽 부분.
- 여단집터 : 장터말 북쪽에 있는 남포현의 여단터.
- 여수집 : 향교굴 남서쪽 널추굴 안 모과나무굴 입구에 있는 바위 구멍.
- 옥동저수지 : 향교굴 남쪽에 있는 저수지.
- 옥마봉(玉馬峰) : 성주산의 남쪽, 중계탑이 있는 봉우리. 여지도서에 김성우 장군이 전투를 벌일 때 신령스러운 말이 저절로 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옥마산(玉馬山) : 남포면 옥동리 옥마산 <1911, 朝鮮地誌資料>
- 웅곡(甕谷) : 독굴의 한자 표기.
- 웅곡리제언(瓮谷里堤堰, 독골방죽) : 옥동리 독굴에 있던 저수지. 현재의 독굴저수지 자리인 것으로 생각됨 <1911, 朝鮮地誌資料>
- 웅곡제(甕谷堤) : 독굴저수지의 한자 표기.
- 위뜸 : 향교굴의 동쪽 부분. 남포 향교가 있는 곳이다.
- 잉굴재 : 향교굴 동쪽 산 봉우리. 창동리, 성주면 개화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돼지봉이라고도 부른다. 높이 472.0m이다.
- 잉굴재고랑 : 향교굴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잉굴재의 서쪽 골짜기이다.
- 작은독굴 : 작은독굴고랑 입구에 있는 마을.
- 작은독굴고랑 : 향교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장구목굴 : 향교굴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능선 너머는 창동리이다.
- 장태말 : 공동묘지 남쪽에 있는 밭을 일컫는 말이다. 옛날에 장이 섰었다고 전한다. 대왕자동차 정비공장이 서있는 곳에서 6.25 때 서천군의 공무원 5명이 인민군에게 총살되었다고 전한다. 이곳에서 지뢰를 가지고 놀던 학생들이 다치기도 했다고 한다.
- 죽은말재 : 옥동리 향교굴에서 말재로 오르는 길. 마래고랑의 남쪽 능선을 따라 오른다.
- 징그래미 : 옥동리 서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 큰독굴 : 큰독굴 안에 있는 마을. 서세굴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큰독굴말랭이 : 작은독굴 북쪽에 있는 산. 높이 128.0m 이다.

32 • 남포면

- 피천소(避天所) : 장터말 남쪽, 옥마선과 장항선 철로 사이에 있었다.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던 곳이라고 전한다.
- 향교골 : 남포 읍성 동쪽에 있는 옥동리의 중심 마을. 남포향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흥룡골 : 작은독굴고랑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남포향교 하마비와 흥살문(2007)



말재(1994)

9. 옥서리(玉西里)

본래 남포군 군내면(郡內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발산(發山) 사현리(沙峴里)와 남리(南里) 동리(東里) 서리(西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옥마산과 서리의 이름을 따서 옥서리라 하고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하였다.

근래 포도를 집단 재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이다. 포도재배는 새아니 마을의 박재선 씨가 1973년 웅천읍 두룡리에 파라다이스 포도농장이 들어선 것에 착안하여, 1974년 포도를 식재하고, 1976년 첫 수확부터 성공하여 마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1983년도에는 사현포도 작목반을 결성하였고, 2001년에는 영농조합법인인 사현포도연구회가 결성되고 2005년에는 포도주 제조 면허를 취득하였다.

- 개골봉 : 개구리산의 다른 이름.
- 개구리산 : 남포저수지와 21호 국도 사이에 있는 작고 둥근 산. 개골봉이라고도 한다.
- 갯지뚝 : 흥뜸 마을 동쪽의 들.
- 건쟁이 : 옥서리의 중앙부 21호 국도 동쪽에 있는 마을.
- 경찰묘지 : 이어나재에 있는 철도 경찰의 무덤. 6.25 사변 중 철도경찰대와 인민군 6사단 사이에 일어난 주산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정철모 총경 등 9명의 철도 경찰을

이곳에서 학살하여 묘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근래에 주산 전투현장에 묻혔던 6구의 유골도 수습하여 이곳에 합장하였다.

- 공동묘지 : 건쟁이 마을 북쪽, 새울고랑과의 사이에 있는 공동묘지.
- 구봉산 : 봉화산의 다른 이름.
- 구석박굴 : 새아니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죽은체격굴의 남쪽에 있다.
- 금천(金川,쇠니) : 남포면 옥서리 열구리 앞을 흐르는 내. 현재 고속도로 밑 지역을 부르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지명이 소멸되고 노인만 알고 있음. 새내라고도 함. <1911, 朝鮮地誌資料>
- 금천교 : 남포저수지 수문 아래에 있는 다리.
- 꽃밭재 : 옥서리 이어니재 북쪽에서 남포면 신흥리로 넘어가는 고개.
- 꽃밭재골 : 이어니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꽃밭재의 동쪽에 있다. 알미골과 동미 사이에 있다.
- 나마시 : 새아니마을 남쪽 골짜기. 작은골과 새아니골 사이에 있다.
- 남포저수지(藍浦貯水地) : 남포면 달산리, 신흥리, 양항리 들에 물을 대는 저수지이다. 저수지의 크기는 3ha이고 1956년에 축조되었다. 월구리와 바람뱀이 마을 일부가 저수지에 수몰되었다. 1980년대부터 청천저수지의 물을 받아 저수한다.
- 넓적바위 : 사현 마을의 동쪽 산적골에 있는 넓은 바위. 6.25 때 마을 주민들이 피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바위 위에 물이 흘러간 것처럼 골이 패었는데 장수가 오줌을 누어 패었다고 전한다.
- 능박굴 : 건쟁이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독지랭이고개 : 새아니 안뜰에서 웅천읍 수부리 가름자골로 넘어가는 고개. 봉화산의 바로 밑으로 나 있다.
- 동미 : 이어니재 북쪽 꽃밭재골과 흥뜸 사이에 내민 산. 송아지 꼬리의 형국이라고 한다.
- 동지랭이 : 새아니 마을 안뜰에서 독지랭이재로 통하는 골짜기. 봉화산의 밑이다.
- 마동(馬洞) : 말굴의 한자 표기.
- 마랫들 : 남포저수지 동쪽 철로와 21호 국도 사이에 있는 들.
- 만리성 : 웅천 수부리 산성의 정상 부분이 남포면 지역에 있어 부르는 이름이다.
- 말골 : 이어니재 동쪽의 골짜기. 배나무골과 큰골 사이에 있다.
- 말골 : 새아니 서쪽에 있는 마을. 말골의 북쪽이다.
- 말목시 : 남포저수지의 수문 부분을 일컫는 이름.
- 매봉 : 새아니 마을 남쪽에 있는 봉우리. 말골과 큰골 사이에 있다. 높이 228.2m이다.
- 무르재 : 열구리 북쪽의 산.

34 • 남포면

- 바람박이 : 바람밖에의 다른 이름.
- 바람밖에 : 남포저수지 남동쪽, 21호 국도와 남포저수지 사이에 있는 마을.
- 발산(發山) : 바람박이의 한자 표기.
- 배나무골 : 이어니재 동쪽 송날과 말골 사이의 골짜기. 보령댐 수로가 통과하는 터널이 있다.
- 병배재 : 부영배재의 다른 이름.
- 봉오산 : 봉화산의 다른 이름.
- 봉화산 : 옥서리의 남서쪽 끝에 있는 산. 웅천읍 두룡리, 남포면 신흥리와 경계한다. 높이 275.1m이다. 옛날에 봉화대가 있었다고 전한다.
- 봉화산 : 새아니 마을 동쪽에 있는 산. 옛날 옥미봉(玉眉峰) 봉수가 있던 곳이다. 현재도 봉화의 흔적과 집터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높이 416.8m이다.
- 부영배재 : 건쟁이에서 달산리 야동으로 넘어가는 재. 꼭대기에 느티나무 서낭이 있다.
- 빗독거리 : 바람밖에 마을 서쪽에 있는 옛 길. 이곳에 20여 개의 비석이 서 있었는데 저수지의 축조로 모두 없어졌다.
- 사현(沙峴) : 1960년대 옥서리 2구(月村,沙峴) 중 1구. 새아니의 한자 표기.
- 사현치(沙峴峙, 사현이치) : 새아니재 <1911, 朝鮮地誌資料>
- 산적굴 : 새아니 위뜸 동쪽의 골짜기. 으텡이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의 북쪽이다.
- 살구쟁이 : 새아니 위뜸 동쪽에 있는 골짜기. 황새박굴과 으텡이굴 사이에 있다.
- 새아니 : 옥서리 남쪽 끝에 있는 마을. 안뜸, 위뜸, 아래뜸, 말골, 흥뜸으로 구성된다. 포도단지로 유명해진 마을이다.
- 새아니재 : 새아니 마을에서 웅천읍 수부리 불근댕이로 넘어가는 고개.
- 새아니재골 : 새아니재 북쪽의 골짜기. 나머시의 동쪽이다.
- 새아니저수지 : 새아니 안뜸 위에 1970년대에 축조되었다. 여러 차례의 산사태로 매몰되었었다.
- 새울고랑 : 건쟁이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읍내리와의 경계지역이다.
- 성밖이 : 남포읍성 서쪽 지역을 통칭하는 말. 21호 국도의 서쪽은 법정리로는 옥서리에 속하지만 행정구역으로는 읍내리에 속한다.
- 소도독굴 : 이어니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송날 : 이어니재의 동쪽 소도독굴과 배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송아치골 : 흥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송장재 : 큰건쟁이골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331.9m이다. 이곳을 통하여 말재로 이어진다. 읍내리와 성주면 개화리의 경계이다.

- 신구술 : 남포저수지 동쪽에 있는 들.
- 신구술 : 남포저수지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과거 이곳으로 도로가 통하였다.
- 아래뜸 : 남포저수지 제방 서쪽 얼구리의 서쪽 부분.
- 아래뜸 : 새아니 마을의 서쪽 부분.
- 아래뜸 : 장터말의 서쪽 부분.
- 안뜸 : 새아니 마을의 동남쪽 부분. 성주산의 여러 계곡 물이 이곳으로 집중되어 수해를 많이 입기도 하였다.
- 알미골 : 이어나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짚은골과 꽃밭재골 사이에 있다. 6.25 사변 때 이 골짜기와 짚은골에서 보도연맹에 소속된 좌익 인사들을 학살하였다.
- 알미산 : 이어나재의 북쪽 짚은골과 알미골 서쪽에 있는 산.
- 야동재 : 부엉배재의 다른 이름.
- 얼구리 : 남포저수지 제방 서쪽에 있는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남포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수몰민이 들어와 밀집된 촌락을 이루었다. 남포항교가 웅천읍 대천리에서 현재 위치로 옮기고 다시 이곳으로 옮겼다가 현재의 위치로 또다시 옮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최근까지 얼구리에는 향교 토지가 많았다.
- 연재(燕재) : 이어나재의 한자 표기.
- 염점뜸 : 남포저수지 북쪽에 있는 장터말 위뜸의 다른 이름. 소금을 정제하던 공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영계봉 : 큰건쟁이골 위에 있는 봉우리. 웅천읍 수부리, 성주면 개화리와의 경계가 된다. 이곳에는 예부터 은 천냥짜리 묘가 있다고 전한다. 높이 379.8m이다.
- 오리보 : 달산리 불무굴과 옥서리 노승쟁이 사이의 새내에 있는 보. 소송리 앞에 물을 대었다.
- 옥서1리 : 1반 아래뜸, 2반 중뜸, 3반 장터말.
- 옥서2리 : 1반 사현이, 2반 흥뜸, 3반 건정이.
- 옥서리저수지 : 남포저수지의 다른 이름.
- 월구리 : 얼구리의 다른 이름.
- 월촌(月村) : 1960년대 옥서리 2구(月村,沙峴) 중 1구.
- 월촌(月村) : 얼구리의 한자 표기.
- 위뜸 : 남포저수지 제방 서쪽 얼구리의 동쪽 부분.
- 위뜸 : 새아니 마을의 동북쪽 부분.
- 위뜸 : 장터말의 동쪽 부분. 염점뜸이라고도 한다.

36 • 남포면

- 으텡이고개 : 새아니 위뜸에서 웅천읍 수부리 가름자골 관음사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고개.
- 으텡이굴 : 새아니 위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살구쟁이와 산적굴 사이에 있다.
- 이어니재 : 옥서리 남쪽 웅천읍 두룡리와 의 경계에 있는 고개. 새아니에서 웅천읍 수부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수부리산성을 통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개인 데 비하여, 이 고개는 통과하는 데 제약이 없는 보통 고개이기 때문에 보령지방에서 보통을 뜻하는 ‘여늬’를 붙여 ‘여늬재’로 부르다가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서 1950년 7월 경찰이 후퇴하면서 보도연맹원을 학살하였고, 주산전투에서 포로가 된 철도경찰을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학살하기도 하였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 이어니재골 : 이어니재 북쪽의 골짜기.
- 이어니재굴 : 이어니재에 있는 장항선의 터널.
- 이현(梨峴) : 이어니재의 한자 표기.
- 작은건쟁이골 : 건쟁이 마을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건쟁이골과 큰체격골 사이에 있다.
- 작은골 : 새아니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골과 나마시 사이에 있다.
- 장터말 : 남포저수지 북쪽 마을. 위뜸,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쟁그랭이 : 열구리 마을의 서쪽 부분.
- 주막거리 : 남포저수지 속에 있던 마을. 사거리에 있었고 부근에 도살장이 있었다고 전한다.
- 죽은체격굴 : 새아니와 건쟁이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구석박굴과 큰체격굴 사이에 있다.
- 짚은골 : 이어니재 경찰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경찰묘지와 알미골 사이에 있다. 6·25 사변때 이 곳과 알미골에서 보도연맹에 소속된 좌익 인사들을 처형하였다.
- 죽두리바위 : 큰건쟁이골 동쪽에 있는 영계봉에 있는 바위.
- 큰건쟁이골 : 건쟁이 마을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애석 광산이 있다.
- 큰골 : 새아니 마을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말골과 작은골 사이에 있다.
- 큰체격굴 : 건쟁이 마을 남쪽의 골짜기. 작은건쟁이골과 죽은체격골 사이에 있다.
- 테피 : 남포저수지 남쪽 달산리와 의 경계에 있는 산. 작은 산봉우리를 토성으로 둘러싸 붙여진 이름이다.
- 허구재 : 새아니에서 달산리 댈월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 어느 남매가 이 고개를 넘다가 소나기를 만나 온몸이 젖어 속살이 드러나자 오빠가 욕정을 품었다가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자살하였는데, 여동생이 ‘허구나죽지’라고 해서 허구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일꾼들이 들일을 하면서 하던 이야기이다.

- 흥뜸 : 새아니 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21호 국도의 서쪽에 있다.
- 황새박굴 : 새아니 안뜸 동쪽의 작은 골짜기. 독지랭이와 살구쟁이 사이에 있다.
- 후평(後坪,되들) : 남포면 옥서리 저수지를 포함한 동쪽 들 <1911, 朝鮮地誌資料>



얼구리 마을(1996)



이어나재 보도연맹원 학살현장(2008)

10. 월전리(月田里)

남포군 신안면(新安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계리(月溪里)와 영전리(令田里) 일부를 병합하여 월전리(月田里)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되었다.

- 각시바위 : 용머리 마을 서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 주끝이의 남쪽이다.
- 갓굴재 : 영전 마을과 웅천읍 관당리 갓굴 사이에 있는 고개. 성황당이 있으며, 구슬재라고도 부른다.
- 개굴재 : 달월 마을 동쪽에서 선적굴을 통해 웅천읍 구룡리 고뿌래로 가는 고개.
- 갱이골 : 월전리 남서쪽 영전 마을과 대나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검장재 : 용머리 마을 남쪽에 있는 모래 언덕. 1970년대까지는 순수한 모래로 되어 있었으나 근래 소나무를 조림해 숲이 울창하다.
- 고박동 : 곱빠굴의 한자식 표기.
- 고뿌래재 : 달월 마을 남동쪽의 산작굴에서 웅천읍 구룡리 고뿌래로 통하는 재.
- 고뿌래재 : 밧달월에서 빼룩모를 통하여 웅천읍 구룡리 고뿌래로 넘어가는 재.
- 곱빠굴 : 달월 마을의 동쪽 부분.
- 팽이바위 : 용머리 마을 북쪽, 수등안 아래 간척지 배수로 바닥에 있던 넓고 검은 바위. 간척지가 막히기 전에는 이 바위에서 망둥이 낚시질을 하였다고 전한다. 바위틈 사이로 흰 돌이 보이는데 이 돌 아래에 백사가 산다는 전설이 있었다.

- 구수굴 : 월전리의 남쪽 끝, 포장도로가 지나는 골짜기. 서낭댕이고개의 북쪽이다.
- 구수굴 : 월전리의 남쪽 끝. 앞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웅천읍 관당리와 통하는 포장도로가 지난다.
- 구슬재 : 월전리 남쪽 영전과 웅천읍 관당리 갓길 사이에 있는 재. 서낭댕이가 있다. 갓길재라고도 부른다. 옛날 무창포 해창으로 구슬(옛날에 세곡을 구슬이라고 불렀다고 함)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코당은고개라고도 부른다.
- 당산 : 영전 마을 서남쪽에 있는 산. 웅천읍과의 경계이다. 웅천읍 관당리 갓길에서 위하는 당산이다. 삼각점이 있고 높이 71.3m이다.
- 당재 : 대자울 마을 서쪽에 있는 언덕. 과거에 산재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 대나루 : 월전리 남서쪽 장군배와 갱이골 사이에 있는 들. 해안에 위치하며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 대섬 : 월전리의 북서쪽 끝에 있는 섬. 남포방조제 축조로 육지와 연결되었다. 예부터 주민이 거주하였다. 섬의 높이는 60.8m이고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2008년 5월 4일 이상과랑 현상으로 7명의 관광객이 희생되었다.
- 대월(大月) : 달월의 한자 표기.
- 대자울 : 월전리의 북쪽, 양기리와의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
- 대자울재 : 월전리의 북쪽 대자울에서 양기리로 통하는 언덕. 포장도로가 지난다. 재의 서쪽에 여러 기의 고인돌이 있다.
- 대잘 : 재자울의 다른 이름.
- 달월 : 월전리의 남동쪽에 있는 마을. 쉼바탕이의 동쪽이다. 양지뜸과 곱빠굴로 구성된다.
- 달월재빠기 : 쉼바탕이 마을 동쪽에 있는 재. 남포간척지, 남포 읍내리, 웅천읍 무창포로 통하는 삼거리이다.
- 덕메재 : 구수굴 남쪽 서낭댕이가 있는 고개.
- 말바위 : 용머리 마을 서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 주끝이의 남쪽이다.
- 맥도(麥島) : 보리섬의 한자 표기.
- 맥도자마석(麥島自磨石,보리섬자마석) : 보리섬 자마석. <1911, 朝鮮地誌資料>
- 목쟁이 : 대섬의 동북쪽 끝.
- 목밭 : 대자울 마을 북쪽 언덕 너머의 밭. 논으로 경지정리 되었다.
- 바위백이 : 쉼바탕이 마을 남쪽에 있는 들. 이곳에는 고인돌이 있어서 바위백이라고 불렀는데 1980년대 경지정리 때 땅 속에 묻었다.

- 밧달월 : 달월 양지뜸과 곱빠굴을 통칭하는 말.
- 배덕 : 대섬의 남서쪽 부분. 배를 대던 곳이며 현재도 이곳에 물양장이 있다.
- 병풍바위 : 보리섬 서쪽에 있는 바위. 암석이 수직의 절리를 따라 침식되어 병풍을 두른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최치원 선생이 놀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 보리섬 : 월전리 북쪽에 있는 섬. 섬에는 병풍바위가 있으며, 이 바위 앞에 자마석이 있었다고 전한다. 신라 시대에 최치원 선생이 놀았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 빠룩모 : 곱빠굴 마을에서 앞줄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산작굴 : 달월 마을이 남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 고뿌래재로 통한다.
- 서낭댕이 : 구수굴 남쪽에 있는 고개에 있었다. 웅천읍 관당리 덕메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서낭댕이 : 월전리 남쪽 갯굴재에 있다.
- 서항리(西項里) : 쉼바탕이의 한자 표기.
- 선적굴 : 월전리 동쪽 곱빠굴 마을 동쪽의 골짜기. 개굴재로 통하는 길이 있다.
- 쉼바탕이 : 월전리의 중앙에 있는 마을. 남포간척지, 남포면 소재지, 웅천읍 무창포로 통하는 도로가 합쳐지는 삼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소등안 : 수등안의 다른 이름. 옛날 소등이라는 장사가 바다를 막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사구의 순수 우리말 이름인 술등에서 나온 말이다.
- 술서낭댕이 : 육굴에서 대자울로 통하는 길과 달월재빠기에서 용머리 마을로 통하는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다. 신수로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송죽(松竹) : 대자울의 다른 이름.
- 쇠뜰 : 솟뜰의 다른 이름. 사구의 순수 우리말인 술등에서 나온 이름이다.
- 쇠뜰 : 월전리의 북쪽과 양항리의 남쪽에 걸친 마을.
- 수등안 : 용머리 마을 북쪽에 있는 들. 사구인 술등의 안이라는 의미이다.
- 솟뜰 : 월전리 북쪽 해안. 1960년대 초까지도 풀 한 포기 없는 전형적인 사구였으나 방풍림을 조성하여 울창한 삼림으로 변화였다. 술등이 변한 이름임.
- 신두리 : 보리섬의 서북쪽, 대섬의 동쪽에 있는 섬. 옛날 주변에 고기잡이 용 살과 독살이 있었고, 이 섬에는 살막이 있었다고 전한다. 남포방조제의 건설로 모두 없어졌다.
- 신랑바위 : 용머리 마을 서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 주끝이의 남쪽이다.
- 아래뜸 : 용머리 마을의 남쪽 부분.
- 안달월 : 달월 마을의 동쪽 끝 부분. 달월 소류지가 있다.

40 • 남포면

- 앞줄 : 월전리 남쪽 끝에 있는 마을. 달월의 남쪽이다.
- 양지뜸 : 달월 마을의 서쪽 부분.
- 양촌(陽村) : 달월 양지뜸의 한자 표기.
- 영전(令田) : 월전리의 남서쪽 끝에 있는 마을. 과거에는 용머리를 포함하여 모두 영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웅천읍 관당리 잣골과 인접된 곳만을 지칭한다. 월전리의 중심 마을인 용머리보다 먼저 생긴 마을이라고 하며, 용머리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는 경주 이 씨가 이곳으로 처음 들어왔다고 전한다.
- 영전골 : 영전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논으로 이용된다.
- 영전리(令田里,룡머리) : 용머리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영전포(令田浦,용머리포) : 용머리 포구 <1911, 朝鮮地誌資料>
- 용두(龍頭) : 1960년대 월전리 2구 중 1구. 용머리의 한자 표기.
- 용머리 : 용머리 마을 북쪽에 있는 산줄기의 끝. 풍수지리상 용의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한다. 대개는 주끝이라고 부른다.
- 용머리 : 월전리 서쪽 해안에 있는 중심 마을이다. 예부터 경주 이 씨가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주변에서 남포에석으로 불리는 화강암이 산출되어 예부터 석공업이 발달한 마을이다. 해안에 위치하면서도 어업과는 관련이 없던 마을이다.
- 용바위 : 대섬 서쪽 해안에 있는 바위.
- 우평(牛坪) : 쇠들의 한자 표기.
- 옥굴 : 용머리 마을의 동남쪽 부분. 교회가 있는 마을이다.
- 월계(月溪) : 1960년대 월전리 2구 중 1구
- 월계(月溪) : 달월의 한자 표기.
- 월계리(月溪里,다리울) : 달월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월전1리 : 1반 앞줄, 2반 양지평, 3반 서밭당이, 4반 대자울.
- 월전2리 : 1·2·3반 용머리, 4반 영전, 5반 쇠뜰.
- 위뜸 : 용머리 마을의 북쪽 부분.
- 으뜸산 : 웅천읍 구룡리와 양기리, 월전리 사이에 있는 산. 높이 198.0m이다.
- 자마석(自磨石) : 맥도 병풍바위 앞에 있었다는 바위. 맷돌 같은 바위인데 스스로 돌았다고 전한다.
- 자활원 : 월전리의 서쪽 끝에 있던 사회복지시설. 1960년대에 건설되었으나 1970년대에 없어졌다. 현재도 건물 몇 채가 남아 있다.
- 작은고랑 : 대자울골과 달월재빼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 논으로 개간되었다.
- 작은독살 : 월전리 서남쪽에 있는 큰독살 밖에 있던 독살.

- 장군배 : 월전리 남서쪽 끝에 있는 바위.
- 장벌 : 용머리 마을 서쪽의 모래 백사장. 여름에는 군부대의 휴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서객들도 모여들고 있다.
- 장벌 : 월전리 북서쪽에 있는 해안.
- 조개재 : 용머리 마을에서 보리섬 쪽으로 통하는 고개.
- 주끝이 : 용머리 마을 북쪽에 있는 산줄기의 끝.
- 죽도(竹島) : 대섬의 한자 표기.
- 진등 : 달월 재빠기에서 용머리로 통하는 긴 능선.
- 쪽다리 : 통관의 동쪽에 있던 옛 다리. 황배들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놓여졌던 다리이다.
- 척동(尺洞) : 대자울의 다른 이름.
- 코당는고개 : 구슬재의 다른 이름. 경사가 급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큰독살 : 월전리 서남쪽 장군배와 용머리 마을 사이에 있는 독살이다. 독살은 돌로 담을 쌓아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것이다. 이 큰독살의 북쪽 부분은 남포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남포살, 남쪽 부분은 곰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곰내살이라고 불렀다.
- 통관 : 월전리 남쪽에 있는 황배들에서 내려가는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부분. 이곳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면 닫히고, 나가면 열리는 수문이 있었다. 주변에서 애석을 많이 채취하였다.
- 황배들 : 월전리 남쪽에 있는 들. 1980년대초에 경지 정리를 하였다.



월전리 전경(1989)



용머리 샘(1996)

11. 읍내리(邑內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군내면(郡內面)의 지역으로서 남포군청이 있었으므로 읍내(邑內)라

42 • 남포면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리(中里), 동리(東里), 서리(西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읍내리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되었다.

- 가마바위 : 말재 남쪽에 있는 바위. 가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구름다리 : 냇가말 서쪽, 21호 국도위에 놓여진 철다리.
- 남리(南里) : 냇가말, 남촌의 한자 표기.
- 남성바위 : 말재 남쪽에 있는 바위. 남자의 성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남포장 : 성밖이 마을의 옥서리 지역인 현 농협 창고 부지에 시장이 있었다. 장날은 2일과 7일이었다.
- 냇가말 : 남포성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 하촌이라고도 부른다.
- 넓은고랑 : 큰골의 동남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송장재의 밑이다.
- 당집 : 읍내리의 동쪽, 옥동리와와의 경계가 되는 산의 능선에 있다. 아주 옛날에 없어진 듯 마을에 당집이라는 지명만 전해진다. 이곳에서 아주 오래된 기와가 출토된다고 한다.
- 당집밭 : 작은말재골의 입구에 있는 밭. 당집의 서남쪽이다.
- 동리(東里) : 동문밖의 한자 표기.
- 동문밖 : 남포읍성의 동문 밖. 이곳에서 물을 끌어 성안으로 들여왔다.
- 동문외(東門外) : 동문밖의 한자 표기.
- 동헌 : 성안 북쪽에 있는 옛 동헌.
- 뚝뽕이고랑 : 읍내리의 북쪽 끝에 있는 골짜기 들.
- 뒷들 : 읍내 마을과 21호 국도 사이에 있는 들.
- 마리들 : 국도 21호선 서쪽에 위치한 들.
- 마치(馬峙) : 말재의 한자 표기.
- 말바위 : 말재로 오르는 길 옆에 있는 바위. 작수바탕과 토끼바위 사이에 있다.
- 말재 : 읍내리 남서쪽에 있는 큰 고개. 성주면 개화리 말재골로 통한다. 옛날 미산면, 부여군 쪽에서 남포현으로 통하던 큰 길이었다. 근래까지 미산면 사람들이 대천장을 보러다닐 때 넘었으며, 미산면 지역의 학생들이 남포초등학교를 다닐 때 넘기도 하였다.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고, 신수로 느티나무가 있다. 지금도 이 성황당에 축원하는 사람이 많다.
- 무검 : 성밖이 마을의 21호 국도 바로 동쪽에 있던 묘처럼 생긴 지형이었다. 이곳은 쉬나무, 팽나무, 탕자나무, 소나무 등이 있었다. 예부터 살인 사건이 많아 이곳에 무기를 묻어 방지했다고 전한다.

- 무명용사묘 : 읍내리 남서쪽 아랫당산의 골짜기에 있다. 6.25당시 25세 정도의 청년이 후퇴하는 인민군을 트럭에 싣고 가다가 개구리산 옆, 철도 굴다리에 충돌하여 모두 죽이려고 하였다. 죽은 인민군은 1명이었고 많은 수가 부상하였다고 진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로 옆 개울에서 총살되었다고 한다. 인민군이 물러간 후 마을 사람 서정구, 황룡, 이영학이 묻어주었다고 한다. 황새산이라고도 부른다.
- 배나무서낭 : 말재로 오르는 길 옆의 성황당. 솔서낭과 작수바탕 사이에 있다.
- 백장굴 : 육굴너머에서 남쪽으로 향한 골짜기. 지사시굴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뱀형국 : 읍내리 남쪽, 작은당산으로 뻗은 긴 산줄기. 뱀의 모습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부엉바위 : 냇가말 동남쪽 말재 아래에 있는 바위. 부엉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상보(上洑) : 동리 동쪽에 있는 보.
- 상보 : 남포읍성 동쪽 내에 있는 보. 2개의 보 중 위에 있는 보이다.
- 상촌(上村) : 위뜸의 한자 표기.
- 서낭댕이 : 냇가말 남서쪽 장승백이를 부르는 다른 이름.
- 서낭댕이 : 읍내리 남동쪽 말재의 꼭대기에 있다. 큰 돌 무더기가 현재도 남아있고 큰 느티나무가 있다. 지금도 축원하는 사람이 많다.
- 서리(西里) : 성밖이의 다른 이름.
- 서문외(西門外) : 성밖이의 한자 표기.
- 성뚝 : 남포읍성을 부르는 이름. 동, 서, 남 3곳에 문이 있고 문에는 용성이 둘러져 있다.
- 성밖이 : 남포읍성의 서문 밖 마을. 21호 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에 마을이 들어서 있다. 21호 국도의 서쪽은 옥서리에 속한다.
- 성안 : 남포읍성의 안을 일컫는 말. 남포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진서루, 동헌 건물이 남아있다.
- 솔서낭 : 말재로 오르는 길에 있는 성황당. 배나무서낭 아래에 있다.
- 송장재 : 남포면 읍내리, 옥서리, 성주면 개화리의 경계가 되는 산. 높이 331.9m이다.
- 스승지고랑 : 육굴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절터고랑과 넓은고랑 사이에 있다.
- 아랫당산 : 읍내리 남서쪽 끝에 있는 산. 21호 국도의 동남쪽이다. 이 산의 북쪽 골짜기에는 6.25 사변때 의롭게 죽은 운전사의 무덤이 있다.(무명용사 묘)
- 옥산아문: 남포성 성안 옛 동헌의 삼문
- 옥집 : 중뜸 마을 회관 동쪽에 있는 집. 주변보다 약간 높고 돌담이 둘러져 있다.

44 • 남포면

과거에 옥사(獄舍)가 있던 곳이다.

- 용성도래 : 남포읍성의 북쪽 부분.
- 왜솔밭 : 말재의 북쪽에 있는 소나무 숲. 해송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위뜸 : 남포성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윗당산 : 아랫당산의 동쪽 봉우리.
- 육굴 : 읍내리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육굴너머 : 육굴 너머에 있는 마을.
- 육굴너머 : 육굴 서쪽 부분을 부르는 말. 모두 논이다.
- 읍내(邑內) : 남포성 남쪽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 중촌, 상촌, 하촌, 성밖이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 읍성(邑城, 골성) : 남포읍성 <1911, 朝鮮地誌資料>
- 작수바탕 : 말재로 오르는 길의 좀 평평한 곳. 지계를 받쳐놓고 쉬어가던 곳이다.
- 작은말재 : 옥동리 쪽에서 말재로 오르는 길.
- 작은말재골 : 읍내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말재로 오르는 능선 북쪽에 있다.
- 장승백이 : 냇가말 남서쪽 끝을 부르는 이름. 노인들도 장승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므로 오래전에 없어진 듯하다. 성황당이 있었기 때문에 서낭당이라고도 부른다.
- 장승백이 : 중리의 남쪽, 동리의 북쪽, 남리의 서쪽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옛날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 절터고랑 : 육굴 안에서 남쪽으로 향한 작은 골짜기. 지사시굴과 스승지고랑 사이에 있다.
- 제자거리 : 남포성의 남문 바로 남쪽을 일컫는 지명. 과거 시장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중뜸 : 남포 읍성의 바로 남쪽 냇가말과의 사이에 있는 마을.
- 중리(中里) : 중뜸의 한자 표기.
- 중보 : 냇가말 아래에 있는 보. 상보의 밑에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중보 : 중뜸 동쪽에 있던 보.
- 중촌 : 중뜸의 다른 이름.
- 지사시굴 : 육굴너머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백장굴과 절터고랑 사이에 있다.
- 진서루 : 남포성 성안 옛 동헌 앞에 있는 문루.
- 큰골 : 육굴의 위 부분. 안에 작은 소류지가 있다. 넓은고랑과 날개장굴을 포함한다.
- 토끼바위 : 말재로 오르는 길 옆에 있는 바위. 왜솔밭의 서북쪽이다.

- 하보 : 냇가말 남쪽에 있던 보. 냇가말 서쪽 들에 물을 대었다.
- 하촌(下村) : 남포성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 냇가에 있어 냇가말이라고도 부른다.
- 호랭이굴 : 말재의 서쪽에 있는 굴.
- 흥두깨날 : 큰골 안에 있는 산능선. 넓은고랑과 날개장굴 사이에 있다.
- 황새산 : 읍내리 남서쪽 끝에 있는 산. 아랫당산이라고도 부른다.



남포읍성 남문지(1996)



무명용사 묘(2008)

12. 제석리(帝釋里)

본래 남포군 북내면(北內面)의 지역으로서 제석골(帝釋) 또는 제석동(帝碩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야리(大也里) 삼현리(三賢里) 일부를 병합하여 제석리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하였다

- 가리재 : 밧대실에서 남곡동 황굴로 넘어가는 황굴고개의 다른 이름.
- 가재굴 : 대실 건너뜸의 동남쪽 골짜기.
- 개사리 : 대실 마을의 서남쪽에 있는 들과 주변 가옥을 통칭하는 말. 주민의 거주가 없었는데, 남포간척지 축조 후 마을이 들어섰다.
- 개사리쪽뿌리 : 개사리의 남쪽 끝. 소송리와 의 경계이다.
- 건너뜸 : 대실 마을의 남쪽 부분이다. 아래뜸이라고도 부른다.
- 경모전(敬慕殿) : 지석굴 산제당을 1988년에 새로 짓고 붙인 이름.
- 고래뜸 : 지석굴의 동북쪽 부분.
- 꿩굴재 : 대실 남서쪽 개사리에서 소송리 꿩굴로 넘어가는 고개.
- 담배밭고랑 : 안대실에서 동남쪽으로 난 골짜기.

46 • 남포면

- 대실 : 제석리의 동쪽 지역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안대실, 밧대실, 건너뜸으로 구분된다.
- 대실저수지 : 안대실 안에 있는 저수지.
- 대야곡(大也谷) : 대실의 한자 표기.
- 대야리(大也里, 디야실) : 제석리 대실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둥병개 : 지석굴 남쪽에 있는 들 이름. 원논의 북쪽이다. 옛날에 논에 물을 대던 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뒷굴재 : 지석굴에서 삼현리 뒷굴로 넘어가는 재. 재의 북쪽에 고인돌이 1개 있다.
- 뒷굴재 : 지석굴 원계 북쪽에서 요암동으로 넘어가는 재.
- 등경산(登檠山) : 봉산의 다른 이름.
- 등너머 : 밧대실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원래는 주민의 거주가 없었으나 보령댐 수몰지역인 미산면 풍계리에서 이주한 이주민 23호가 1994년에 들어와 거주한다.
- 망굴 : 오얏굴과 신평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 망석재 : 안대실과 밧대실 사이에 있는 산. 산의 꼭대기에 망주석이 있는 묘가 있는데, 제를 지내면 잘못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 물막이굴 : 대실 건너뜸의 남쪽 골짜기.
- 밧대실 : 대실 마을의 서쪽 부분. 위뜸이라고도 부른다.
- 벧뚝결 : 지석굴 남쪽 옛 바닷가에 있던 작은 마을이다. 옛날 소금을 굽던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봉산 : 대실 마을 남쪽, 소송리와외의 경계 지역에 있는 높이 180.2m의 산. 봉화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화대를 보호하는 성이 있다. 등경산이라고도 한다.
- 부엉배 : 안대실 동북쪽 끝에 있는 바위. 내항동 녹문과의 경계지역이다.
- 산제당 : 지석굴 동북쪽 산 중턱에 있는 산제당이다. 약 200여 년 전 지석굴 마을에 사는 김국서의 꿈에 경순왕이 나타나 왕기와 위패가 든 상자가 있을 테니 잘 보존 하라는 명을 받고,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보니 상자가 있어 자기집에 모셨고,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후 마을 주민들이 당집을 마련하고 매년 정월 열나흘에 제를 지냈다고 한다.
1988년 제당을 새로 짓고 경모전(敬慕殿)이라 이름하였다. 왕기(王旗)라 전해지는 기는 가로로 朝鮮朝, 세로로 湖西玉馬山金傳大王之旗라 씌여있다. 이 왕기와 함께 있는 판자에는 ‘道光十二年壬寅九月初吉日金傳大王之旗改件 민년초길일노당너리게하라’라 기록하여 왕기가 道光 12년(1832) 개조되어 동기로 쓰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새태패 : 신평 마을 앞 들을 일컫는 말.

- 샘너머재 : 지식굴 북쪽에 있는 재. 요암동과 연결된다.
- 샘너머재 : 지식굴 서북쪽 산제당(경모전)을 통하여 요암동으로 넘어가는 재.
- 서낭댕이 : 안대실에서 밧대실로 넘어가는 고개의 꼭대기에 있다. 다박솔나무가 있다.
- 서낭댕이 : 지식굴에서 요암동 쪽으로 넘어가는 산 꼭대기에 있다. 신수로는 소나무가 있다.
- 성재 : 신평 마을 북쪽과 오얏골 북쪽 사이에 있는 산 능선.
- 성재너머 : 신평 마을의 서북쪽 골짜기의 상부. 성재의 동쪽 골짜기이다.
- 술뚝이마 : 대실 마을 서남쪽에 내민 낮은 언덕의 끝. 솥돌의 끝처럼 내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들의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내밀어 좁은 목을 이루었다.
- 승주미골 : 승지미골의 다른 이름.
- 승지미골 : 안대실에서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 건지산의 남쪽 골짜기이다.
- 신평(新坪) : 지식굴과 대실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현재는 신평이라고만 불리나, 마을 앞 들을 ‘새태패’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새태’로도 불렸을 것으로 보인다.
- 아래뜸 : 대실 마을의 남쪽 건너뜸의 다른 이름.
- 아래뜸 : 지식굴의 동남쪽 부분.
- 안고랑 : 밧대실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논.
- 안대실 : 대실 마을의 동쪽 부분. 마을 입구에 대실저수지가 있다.
- 양골 : 신평 마을 서쪽 골짜기.
- 애장굴 : 망굴 마을 서쪽의 낮은 산. 옛날에 애장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양수장 : 밧대실 입구 망석재 남쪽에 있다.
- 양지뜸 : 지식굴의 서쪽 부분.
- 열니고랑 : 안대실의 대실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오얏골 : 지식굴 마을 동쪽 언덕 너머에 있는 골짜기. 논으로 개간되었고 주민의 거주는 없다.
- 오얏골토광 : 오얏골 안에 있는 작은 저수지.
- 옥간재 : 신평 마을에서 밧대실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 옥간재고랑 : 등넘어고랑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옥간재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원논 : 지식굴 남쪽 옛 간척지 끝에 있는 논. 근래 간척한 간척지와 구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원제(元帝) : 대실과 구분하여 원래의 지식굴(帝釋)이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
- 위뜸 : 대실 마을의 서쪽, 밧대실의 다른 이름.

- 장고개 : 안대실, 밭대실에서 내항리 대천여상 뒤로 넘는 고개. 대천장을 넘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 제석(帝釋) : 지석굴의 한자 표기.
- 제석1리 : 1반 상동, 2반 개사리, 3반 하동.
- 제석2리 : 1반 양지뜸, 2반 아래뜸, 3반 신평.
- 제석골(帝碩) : 지석굴의 한자 표기.
- 제석동(帝碩洞) : 지석굴의 한자 표기.
- 중매 : 안대실과 대덕굴 사이에 있는 산. 높이 96.7m이다.
- 지석굴 : 제석리 서쪽 끝에 있는 중심 마을. 양지뜸, 아래뜸, 고래뜸으로 구분된다.
- 쪽굴재 : 안대실에서 대덕굴 마을 서쪽의 쪽굴로 이어지는 재.
- 쪽굴재 : 안대실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 춤병재 ; 안대실에서 내항리 녹문으로 통하는 고개. 열니고랑의 북쪽에 있다.
- 테봉 : 봉산의 다른 이름. 옛날 봉화대와 테퇴식 산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화가재 : 대실과 봉덕리 대덕굴 사이에 있는 고개. 풍수상 이곳이 불무의 형국이라고 전한다.
- 화가재골 : 대실 마을 동쪽 화가재의 서쪽 골짜기. 상당 부분 논으로 개간되었다.
- 황굴고개 : 밭대실에서 남곡동 황굴로 넘어가는 황굴고개 꼭대기에 있다. 신수는 잡목이다.



지석굴 성황당(2002)



제석리 펜션(2008)

13. 창동리(倉洞里)

본래 남포군 북내면(北內面)의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남포현의 사창(社倉)이 있었으므로 창골 또는 창동(倉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이천리(伊川里) 고야리(古也里)를 병합하여 창동리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되었다.

- 경순왕영모전 : 고야실 마을 동쪽, 옥마산 기슭에 있는 사우이다. 여지도서 등 옛 기록에 경순왕의 사당이 옥마산에 있다는 기록에 따라, 경주김씨 보령종친회에서 1966년 작은 사당집을 지었다가 1992년 보령군 후원으로 현재의 사당을 지었다. 경순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 고랑산 : 고야실 위뜸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고마니샘 : 고야실 마을 동쪽 매봉산의 남쪽에 있던 샘.
- 고야곡(古也谷) : 고야실의 한자 표기.
- 고야실 : 창동리의 동남쪽에 있는 중심 마을.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공동묘지 : 옛 창동정수장 뒤에 있는 산. 옥동리 독굴과의 경계이다.
- 노백이 : 고야실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능선. 산제당굴 안에 있으며, 작은성제미의 북쪽이다.
- 농장 : 농장 마을 서쪽에 있는 들. 원래는 모두 소나무가 들어서 있었으나, 일제시대 야마모도(山本)가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요시무라(吉村謙一郎)가 인수하였다고 전한다. 남포역을 원래 옥서리 현 면사무소 앞에 만들려고 했으나 이 농장 때문에 현위치에 만들었다고 전한다.
- 농장 : 창동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 서쪽이 일제시대 吉村謙一郎의 농장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농장저수지 : 창동리 서남쪽 농장 마을 남쪽에 있던 저수지. 일제시대 吉村謙一郎이 막은 저수지이다. 저수지 자리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였다.
- 느리재 : 고야실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옥동리와 경계가 되는 산능선과 코생이 사이에 있다.
- 다박솔밭 : 고야실 마을 동쪽의 작은 골짜기. 다박솔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 : 고야실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산. 당산이라고만 불릴 뿐 당집도 없고, 당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도 전하지 않는다.
- 대동산 : 고야실 마을 입구의 남쪽에 있는 산. 마을 대동 소유의 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대파락굴 : 고야실 마을의 동북쪽 명천동과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골짜기. 망굴의 북쪽에 있다.
- 말바위 : 고야실 동남쪽 코생이 위에 있는 바위.
- 망굴 : 매봉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칠산번덕지의 동쪽이며 매봉산과 대파락굴 사이에 있다.
- 매봉산 : 고야실 마을의 동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 높이 266.6m이다.

- 물굴 : 고야실 마을 동북쪽에 있는 용수 터널이다. 성주면 개화리에서 보를 막아 이곳으로 물길을 돌렸다. 원래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하여 굴을 뚫었으나, 한 때 상수원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농업용수로 이용한다.
- 물렁이 : 고야실 위뜸의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보령탄광 : 창동리 동쪽에 있던 석탄 광산.
- 북당골 : 고야실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중간에 약수암이 있다.
- 북정자(北亭子 : 창동리의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 21호 국도의 양쪽에 마을이 있어 도로의 서쪽을 봉덕 북정자, 동쪽을 창동 북정자라고 부른다.
- 북한도 : 창동 북정자 마을의 동쪽 끝 부분.
- 빙애길 : 고야실 마을에서 옥동리와 경계가 되는 산능선을 통하여 옥동리 향교골로 오르는 길. 빙애는 벼랑의 의미이다.
- 사차굴 : 고야실 마을 동북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매봉산의 동쪽 골짜기이다.
- 산제당 : 고야실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안에 있었다. 1칸의 산제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의 윤창암 자리이다.
- 솟구데기 : 고야실 마을 동북쪽, 탄광마당의 북쪽이다. 옛날 솟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아래뜸 : 고야실의 서쪽 부분.
- 아래뜸 : 원창 마을의 서쪽 부분.
- 약수사 : 고야실 마을 동쪽에 있는 절. 옛 용암사이다.
- 옥마봉 : 고야실 마을의 동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600.8m이다. 근래 TV 중계소가 들어서 있다.
- 용암사 : 고야실 마을 동쪽에 있던 절. 현재는 약수사이다.
- 용화사(龍華寺) : 윤창암 자리에 있던 옛 절 이름.
- 움굴 : 으름내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명천동과 경계한다.
- 원창(元倉) : 1960년대 창동리 2구(元倉, 伊川) 중 1구.
- 원창 : 고야실 마을과 북정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에 사창(社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위뜸과 아래뜸으로 구분된다.
- 원창들 : 원창 마을 북쪽에 있는 들.
- 위뜸 : 고야실의 동쪽 부분.
- 위뜸 : 원창 마을의 동쪽 부분.
- 윤창암 : 고야실 마을 동북쪽에 있는 절. 청암(淸庵) 金閔煥이 1921년 후손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지은 절이다. 김윤환은 남포면 신흥리 봉촌에서 태어나 5개 군수

(郡守)와 내장원경(內藏院卿)을 역임하고, 충남의 대 부호로 윤창농장(閔昌農場)을 경영하였다. 김운환의 누님이 기거하며 매월 세 번 치성을 드렸다.

- 으뜸내 : 북정자 마을 북쪽에 있는 내. 명천동과 경계를 이룬다.
- 으뜸내산 : 고야실 마을의 북쪽 장지미와 움골 사이에 내민 산줄기. 원창 마을의 동쪽 산줄기이다.
- 이천(伊川) : 1960년대 창동리 2구(元倉, 伊川) 중 1구. 북정자 지역임.
- 이천(伊川, 으뜸내) : 으뜸내. 伊川은 伊乙音川 준말. <1911, 朝鮮地誌資料>
- 잉굴재 : 고야실 동남쪽 불당골 위에 있는 봉우리. 옥동리, 성주면 개화리와 경계가 된다.
- 작두모치 : 고야실 아래뜸과 원창 마을 위뜸 사이의 작은 마을. 철도의 동쪽이다.
- 작은성제미 : 고야실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능선. 큰성제미의 북쪽이다.
- 장지미 : 칠산번덕지 북쪽 으뜸내 산의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진걸 : 농장 마을과 원창 마을 아래뜸 사이에 있는 들. 논을 길게 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집뒤밭 : 고야실 위뜸 마을 동남쪽에 있는 밭.
- 창동(昌洞) : 창동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창동1리 : 1반 고야실, 2반 창동, 3반 농장.
- 창동2리 : 1반 북정자, 2반 아래뜸, 3반 으뜸내.
- 창동북정자 : 북정자 마을의 21호 국도 동쪽 부분. 창동리에 속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창동리 400번지에 일제시대 보령 군수였던 김옥균의 양아들 김영진이 남포현 객사 건물을 헐어 집을 짓고 살았다고 전한다. 현재 이곳은 논으로 경작되고 건물의 목재 일부가 다른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 창동정수장 : 고야실 마을 입구에 있던 옛 정수장이다. 개화리에서 넘어오는 물을 이곳에서 정수하였었다.
- 창동주막(昌洞酒幕, 북정주막) : 북정자주막 <1911, 朝鮮地誌資料>
- 칠산번덕지 : 고야실 마을 북쪽에 있는 평평한 땅이다. 면적이 7만 평이나 된다고 한다.
- 코생이 : 고야실 동남쪽 골짜기 안에 있는 작은 산 능선. 느리재와 북당골 사이에 있다.
- 큰성제미 : 고야실 동쪽에 내민 산 줄기. 북당골의 북쪽이다.
- 큰재 : 고야실 마을 동쪽에서 윤창암을 통하여 개화리 함박골로 넘어가는 고개. 나무꾼들이 넘던 고개이다.

52 • 남포면

- 탄광마당 : 산제당 위에 있는 평평한 곳. 옛날 석탄을 캐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턱거리바위 : 고야실 마을 동쪽 큰성제미 위에 있는 바위. 옛날 지게지고 다닐 때 지겟다리가 걸리곤 했던 바위이다.
- 함박굴재 :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의 위쪽에 있는 능선. 옥마봉의 바로 남쪽이다.



김상배(김종필父)비
(1993)



경순왕 영모전(2007)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최덕규(79)	남포면 달산리	박현규(56)	남포면 옥서리 18
김주인(63)	남포면 달산리 457	김형택(70)	남포면 옥서리 57
황규종(57)	남포면 달산리 626	강신규(65)	남포면 옥서리 456
이해명(47)	남포면 삼현리 247 (삼상)	이상규(66)	남포면 월전리 594
박종각(78)	남포면 삼현리 555	이상봉(90)	남포면 월전리
이수장(56)	남포면 소송리 산 58	백남하(81)	남포면 월전리 230
김영근(59)	남포면 신흥리 682	최병구(47)	남포면 읍내리 299
한철규(69)	남포면 신흥리 129	이창호(44)	남포면 읍내리 234
한홍규(59)	남포면 신흥리 197	이명호(49)	남포면 제석리 279
남치운(72)	남포면 신흥리 105	이충호(69)	남포면 제석리 255
김주현(69)	남포면 양기리 75	전병국(50)	남포면 제석리 90-1
백모현(79)	남포면 양기리 213	정광훈(43)	남포면 제석리 537
장공진(59)	남포면 양항리 산 5	정동선(43)	남포면 창동리 52
김명환(73)	남포면 양항리 의항 174	이종학(62)	남포면 창동리 609-1
박상곤(60)	남포면 양항리 12-4	김영희(55)	남포면 삼현리 590 (조잠)
이윤재(60)	남포면 옥동리 56	유홍식(51)	남포면 봉덕리 봉산 267-1
이미자(55)	남포면 옥동리 5	장성운(71)	남포면 봉덕리 243
제순동(69)	남포면 옥동리 333		